

4일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465.42 (-21.28)	687.39 (+3.90)
금리 (미국 9년)	환율 (원·달러)
2.461 (-0.068)	1461.00 (-6.00)



提言

대한민국 분열과 갈등 넘어, 소통과 공존의 시대로 가자

승자도 패자도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누가 이기고 진 것을 판단한 게 아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란 것을 증명한 것일 뿐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 대통령일지라도 법을 넘어서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증명한 것일 뿐이다.

헌정 사상 두번째의 윤 대통령 탄핵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불행한 역사다. 2025년 4월 4일의 역사는 이렇게 기록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 절차에 따라 파면했다. 대통령이더라도 법 앞에 평등함이 확인됐다.’

법치(法治)는 당연하고 평범하지만, 대통령의 불행한 퇴장을 보는 국민의 마음은 안타깝다. 다만, 이번 탄핵선고에 대해 반대

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인정하자.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합의와 절차에 따른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체제 부정이라는 점을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엄중한 대내외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극심해진 사회 분열과 양극화부터 수습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3일의 계엄선 포부터 4월 4일의 탄핵 심판까지 123일을 거치면서 벌어진 정치 양극화를 쉽게 치유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기에 더욱 더 모두의 자제와 포용, 상대방을 인정하는 배려, 함께 살아간다는 공존의 정신이 절실하다.

바람앞 등불 신세인 경제도 살려야 한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선포한 관세전쟁으로 우리 수출 상황은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수출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급기야 국내총생산(GDP)이 1%도 성장하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 전망이 나오기 시작할 정도로 경제가 최악을 향해 가고 있다.

서로의 분열은 최악으로 가는 시간만 당길 뿐이다. 지금은 정치적 갈등과 반목을 떨쳐내고 모두가 공존과 공영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소통과 화합의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까지의 갈등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두고, 이제 대한민국은 다시 시작해야 한다. <관련기사 2·3·4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채에서 열린 개헌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中 ‘맞불관세’, EU도 보복 경고 트럼프發 무역전쟁 자충수 되나

중국, 미국산 제품에 34% 관세
EU, 협상 결렬 땀 보복관세 시사
WSJ “트럼프, 中 견제의 끈 끊어
시진핑에 전략적 선물 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 /뉴스1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관세 양갈음’에 나서고 유럽연합(EU) 역시 미국과의 추후 협상 불발 시 보복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는 등 지구촌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뉴욕 증시가 맥을 못 추는 와중에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감내하라는 주문을 내고 있다. 자국의 유력매체는 미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서방 주요국 및 우방과 꺾끄러운 관계를 초래하고 중국에는 중국만 웃게 만드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국 CCTV·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당국은 지난 4일(현지시간) “들어올 미국산 제품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34%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상호관세 등 무역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34%의 추가 상호관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한 뒤 나온 맞불 대응이다. 중국 국무원 관세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조처는 국제무역규칙에 부합하지 않고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전형적인 일방적 괴롭힘”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중국 상무부는 자국산 이 중용도 물품(군수용·민간용 양쪽 모두 사용 가능한 물품)에 대해 미국 군수기업(16곳)에는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또 사마륨, 가돌리

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광물 7종에 대한 대미 수출 통제 조치도 내렸다.

관세 20%를 맞게 된 EU의 경우엔 일단 ‘선협상 후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 원장은 유럽의회 연설에서 협상을 통한 타협안 도출이 우선순위로면서 “유럽은 통상에서 기술 부문, 시장 규모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카드를 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상품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부문의 (대미 무역수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는 협상을 전제로 한 발언이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될 시 보복관세 등의 비례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26%의 관세 부과를 오는 9일부터 개시한다. 우리 정부는 협상을 서두르기보다 우선 사태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U·일본 등의 대미협상 경과를 봐 가면서 대응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긴급 릴레이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가진, 디스플레이, 기계 부문에 이어 7일에는 이차전지, 석유화학, 섬유 업종 주요 기업들과 대응책을 논의한다. 4일 회의에서 기업들은 대미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베트남·태국 등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의 대미 수출 피해,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격화 등을 우려했다. 정부는 수출바우처·긴급경영자금 등을 검토 중이다.

미국의 조처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자국 언론의 진단도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관세가 시진핑의 날을 만들었다’라는 제하의 4일치 사설에서 백악관발 무역전쟁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략적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WSJ는 미국이 세계 각국을 경제적·전략적 블록으로 묶어 중국을 견제해 온 끈을 트럼프 대통령이 잘라버렸다고 지적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우원식 국회의장 대국민 특별담화문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이번 기회에 권력구조 개편해야”
국민투표법개정·개헌특위 요청
4년 중임제, 여야 많은 공감대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통령선거 실시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정치권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구성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국회 사랑채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을 통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 개정 ▲국민투표 선거연

령 하향 및 사전투표제 도입 ▲공직선거와 동시투표 할 시 법적 특례 도입 등을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을 개헌의 목적으로 설명했다.

우 의장은 개헌의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졌으니, 정치권의 타협과 조정을 거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헌이 성사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개헌을 추진하지는 정치·사회적 합의와 구체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개헌안”이라며 “둘 다 어느 정도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담화를 마친 뒤 진행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라며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메트로 한줄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늘 걸 지킬 것”... 승복 입장 표명 없어
▲국민의힘 3선 회동... “조기 대선 승리 전제 조건 등 의견 나뉘” /사진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야”
▲국방장관 대행 “북, 예상 못한 도발 가능성... 방위태세 굳건해야”

▲김부겸 “경선 논의 본격화해야... 완전국민경선이 열쇠”
▲민주 “한 대행, 대선일 조속히 공고해야”... 압박 법안도 발의

‘인력난 가중’ 주52시간제 등 中企 규제완화 목소리 커진다

빨라지는 ‘대선 시계’

노동·신산업·환경·인증 등
업계 규제개선 현안 수면위로
중처법·최저임금 개선 목소리
중소벤처부 역할 강화 이슈도

탄핵 결정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중소·벤처·소상공인업계가 숙원했던 규제 개선 현안들을 서서히 수면위로 꺼내고 있다. 6월초 예정된 조기대선을 앞두고 ‘9981(기업의99%, 종사자의81%)’을 차지하는 경제 주체의 발목을 잡는 노동, 신산업, 환경, 인증 등 각종 규제를 정치권과 정부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전달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중소·벤처·소상공인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강화 및 산하기관 기능조정 이슈도 대선 과정에서 대두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미국 트럼프-북한 김정은 및 남-북간 대화 재개로 개성공단 재가동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규제 이슈 중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노동분야다. 만성적인 인력난에 더해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제조현장에선 인력 운영이 더욱 어려워졌다. 또 대표이사 대다수가 오너인 중소기업 현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소공연

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너무 과도하다는 하소연이다. 최저임금제도 개선도 마찬가지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주 52시간제는 고쳐야 한다. 연장근로가 ‘주단위’로 제한되어 있어 현장에선 이를 유연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월’이나 ‘연’으로 단위를 확대해야 한다. 아니면 고용노동부의 행정조치만으로 가능한 ‘특별연장근로제’를 중소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또 현재 ‘1년 이상 징역’을 하한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처법의 처벌이 너무 과도하다며 이를 ‘상한형(ex 7년 이하)’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규제를 건의하고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가 30일 이내 답변하는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해 현재 운영하고 있다.

소상공인업계에선 현행 단일 체계인 최저임금을 업종 등의 특성에 따라 구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전달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미만월(평균 13.7%)의 경우 농림어업(43.1%), 숙박음식점업(37.3%), 기타서비스업(25.3%) 등에서 높아 업종별,

규모별로 차이를 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노동계와의 갈등 우려 등을 이유로 다소 소극적인 입장이다.

벤처업계는 갈수록 뒷걸음질치고 있는 벤처생태계의 현실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등은 지난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규제장벽 ▲노동경직성 ▲벤처금융 한계 ▲자금 유동성 악화 등으로 기술창업 감소, 벤처투자 위축, 혁신성 저하, 경쟁력 약화, 회수시장 침체 등 벤처생태계가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규제혁신 기준국가 목표 설정 ▲벤처기업 요건 개선 ▲고성장 벤처기업 특화지원 ▲첨단업종 벤처육성을 위한 입법·R&D 지원 강화 ▲모험자본시장 확대 및 제도화 ▲혁신적 사업모델에 대한 규제개선 우선지원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급 부처로 격상한 중기부가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들의 글로벌화와 R&D 지원 강화를 위해 코트라(KOTRA),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의 중기부 이관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2016년 2월10일 박근혜 정부의 전면 중단 결정으로 내년이면 ‘폐쇄 10년’이 되는 개성공단 논의 재개 기대감도 일부에서 일고 있다.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은 “개성공단의 문을 다시 연다면 들어갈겠다는 기업들이 여럿히 많다. 나도 대체 생산을 위해 베트남에 공장을 차렸지만 개성만한 곳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공단을 재개한다면 한국기업만으로는 안된다. 글로벌기업들도 같이 들어가 국제화공단을 만들어야 지속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출신으로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를 지낸 김경만 전 의원은 “중기벤처소상공인 분야는 공정, 상생, 성장, 혁신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의 교섭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이며 납품단가 연동제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펀드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들어가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며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신보 등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들 정책금융기관들은 경제가 어려운 댄파이프라인으로 선봉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탄핵선고’ 영향 제한적... 금리·규제·수급 등이 핵심변수

부동산 시장 영향은

정치 이벤트보다 실질변수가 중요
공급전략 측면 하반기 집중 가능성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일단락됐지만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신중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이벤트보다는 금리, 대출, 공급 등 구조적 변수가 향후 시장 방향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근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압·여·복·성(압구정·여의도·복동·성수)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다.

시는 “정비사업 대상지 해제 시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크다”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역에 대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정책이 다시 규제 기조로 선회하면서 일부 시장 수요는 비아파트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단 2건뿐이었지만 같은

기간 연립·다세대 주택은 13건이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은 정치보다 구조적 변수에 있다고 보고 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6일 “정치 불확실성이 정리된 이후부터는 실질 변수가 중요하다”며 “부동산 시장은 정치보다 금리, 대출, 규제, 수급 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허구역 해제 당시 신청된 주택담보대출이 4월부터 실행되며 가계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며 “정부는 7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

R) 3단계 시행 이후 기준금리 인하 여부 부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급 전략 측면에서도 하반기로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양 수석은 “정책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시장 반응이 본격화되는 시점을 기다릴 수 있다”며 “하반기, 특히 9월 이후 분양이 집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와 공급 변수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가운데 청약 시장에서는 실수요 기반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인천계양과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본청약 분양가는 사전청약 대비 각각 18%, 15% 상승했지만 고양

창릉 S5블록 전용 84㎡는 40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탄핵 선고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단기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정권 유지 여부에 따라 정책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3기 신도시나 1기 신도시 정비 같은 중장기 정책은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공급은 장기 계획인 만큼 일시적인 정치 변수로 중단되긴 어렵다”며 “시장에 영향을 줄 핵심은 향후 금리, 대출 규제 등 구조적 변수의 조합”이라고 강조했다.

/전지원 기자 jiw13@

“의료 비상계엄도 해제하라”... 윤석열 표 정책 중단 요구

의료계 분위기

전국 의사결기대회 등 투쟁 시사
교육 가능 수준 정원축소 촉구

‘윤석열 표(標) 의료정책’이 갈림길에 섰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한 이후, 의료계가 윤 전 대통령이 시행한 의과대학 증원 등의 의료정책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시사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의협을 비롯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서울특별시 의사회 등 의료단체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된 직후 의료 비상계엄도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의협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투쟁 로드맵을 공개했다.

의협은 “이달 13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 회의를 소집하겠다”면서 “20일 예정으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결기대회를 통해 조속한 의료환경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정부가 빠르게 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의사결기대회는 서울 여의도나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혁위) 해체, 의정갈등 책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개혁위 등에서 추진되던 잘못된 의료정책들을 중단하고,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을 합리적으로 재논의해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의료현장과 교육현장으로 돌아오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윤 대통령 독단으로 실행된 모든 의료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를 만들어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를 요구한다”고 주장하며 대화를 요구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그가 국민의 심판을 받았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제 수습의 시간으로 보다 유연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계엄을 즉각 해

제할 것을 요구했다.

의사회는 “필수의료 패키지 등 의료개혁 정책들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 정원을 축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의사회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적절한 환경에서 수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선량한 국민을 ‘처단’한다는 위험적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을 방자한 참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현재는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2일만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

6월 초 선거 유력... 권력독점 벗어나 선진정치 시대 열어야

두 번째 조기대선

60일 이내 선거... 6월 2·3일 윤곽 12·3 사태 수습 등 개헌 논의 필요 '제7공화국' 청사진 화두 전방

‘정치 양극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비상계엄’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한민국은 헌정사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것이 유력한 이번 대선에서는 12·3 내란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방안뿐 아니라,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었다. 양측의 ‘한(恨)’은 ‘해원(解冤·원통함을 푸는)정치’ 양상을 띠게 됐고, 대한민국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만큼 양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뿔뿔 뿔뿔했다는 의미이다.

정치 양극화의 토양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끝없이 갈등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게이트, ‘바이든 날리던’ 등 중요한 고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혐오’라는 감정이 풀릴 새 없이 오히려 쌓이기만 한 셈이다.

결국 집권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슈마다 거야와 맞닥뜨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란 ‘물리적 해결책’을 선택했지만 국회와 시민의 방어로 실패하기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마저 위법·위헌적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이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과

정에서 87년 헌법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위헌임에도 버티는 대통령 권한대행들,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국무위원들. 또 현재의 선고가 기대보다 늦어지자 ‘재판관 8인(혹은 9인)에게 나라의 운명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론까지 대두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개헌을 화두로 던질 때, 여론은 전반적으로 무심했다. 개헌이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

다고 느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행 헌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깨달았고, 이때문에 바꿀 것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개헌을 향한 여론이 성숙된 것이다.

이에 조기 대선에서 7공화국에 대한 청사진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인 6일 국회에서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논의에는 그간 수많은 거부권을 통해 입법부를 무력화시킨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민의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지, 시대 상황에 맞는 기본권은 어떤 것인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단순히 권력구조 논의에만 천착한다면 진영 간 싸움 끝에 개헌이 무산될 공산이 커서다. 그레야 87년 헌법의 문제점을 고치고, 비상계엄 선포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개헌론자들의 입장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현재 탄핵선고 살펴보니

“국가긴급권 남용해 사회적 혼란 초래... 국민 신임 배반한 것”

계엄 요건 등 5개 항목 설명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2022년 5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 당당히 입장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을 기해, 1060일만에 불명예로 퇴진했다.

현재의 결정문은 적법 요건과 본안 판단으로 나뉘어 있다. 적법 요건은 탄핵소추가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적법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 본안 판단은 탄핵 사건의 내용적인 부분이다.

적법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권한이 맞지만, 비상 수단인 만큼 헌법·계엄법에서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법심사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철폐’ 부분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폐·변경하는 것은 ‘소수 사유’의 추가·철폐·변경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 찬성 200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



1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 아님,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 할 수 없어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 아님,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 요건 위반
2 국회 군경투입 위법성	군경 투입·국회 봉쇄로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 헌법 조항 위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권 위법
3 계엄포고령 위헌성	정당제도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 위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 침해
4 선관위 압수·수색	선관위 영장 없이 압수수색, 영장주의 위반·독립성 침해
5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사법권 독립 침해

탄핵인용 8 : 0 > 중대한 법 위반행위 전원일치 인정 국민의 신임 배반,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

자료: 헌법재판소

/뉴스시그래픽

못박았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안 의결 ▲반복 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주장했지만, 현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각하’는 애초 불가능했다.

현재는 본안의 쟁점을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국회에 군경 투입·정치인 체포 지시 ▲계엄포고령 1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현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한 ‘전시·사변’ 등 중대한 위

기상황이 아니었다며, ‘경고성·호소형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야당이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됐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즉, 2024년 12월 3일 이전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며,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도 위헌이라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국무위원 모임’이라고 판시했다.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안전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가 없

는 점, 국회 통고를 하지 않은 점 등도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이 맞다고 봤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게 했다는 사실관계 역시 인정했다. 이는 입법부의 권한과 정당활동의 자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재는 국회 활동과 함께 ‘정치인 체포 지시’도 사실이라고 봤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광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력 분립 원칙, 직업의 자유 및 정치적 기본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특이한 점은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정치인 체포 지시와 따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사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함으로 보인다. 현재는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결국 현재는 ‘피청구인 윤석열’이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한데다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이기에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의 법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혼란·파급 효과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는 의미로, 윤 전 대통령의 복귀가 국가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서예진 기자

‘대권 도전’ 이재명, 주중 사퇴 공식화… 야권 경선 룰 ‘관건’

야권 대선후보 선출방식 주목

8~9일 당 대표직 사퇴 가능성 커져 민주당, 조기 대선 경선 룰 마련 중 비명계는 ‘국민투표’ 전면 요구도 조국혁신당, 오픈프라이머리 제안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준비를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주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권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기간이 짧은 만큼, 야권의 대선 후보 선출 방식에 관심이 모인다.

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대통령 선거일 전 1년 까지’로 당헌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직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당은 특별당규로 21대 대통령 후보자 선출 규정을 만들어 조기 대선에 대비할 예정이다.

현행 법상 각 정당은 선거일 23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만약, 정부가 조기 대선일을 오는 6월 3일로 공고할 경우 4월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까지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약 한달 가량의 당내 경선 기간 동안 숨가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초 7일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이라고 관측됐으나, 사퇴 시점을 8~9일로 늦추는 방안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민주당 대선 후보, 두 번의 당 대표, 탄핵 정국에서 제1야당 대표로 야당을 이끌며 유력 대권후보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이 대표는 1심에서 의원직 박탈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최대 정치 위기를 넘겼다.

당의 패권을 장악한 이 대표가 야권

의 대권후보로 직행할 것이라는 정치권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경선 기간의 비명계 대권 후보들이 합종연횡을 이뤄내 이 대표에 대적할지도 관심사다.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7일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는 반면, 지난 전 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2과전을 벌였던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신삼김(新三金)’으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곧 대권 출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은 100% 온라인 국민투표로 야권의 통합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압도적 승리의 정권 교체만이 내란을 완벽하게 종식할 수 있는 길”이라며 “다가올 대선에서 민주 진보 진영이 압도적 승리 해야 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를 다시 제안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제안에 당 내부의 절차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검토 여부 대해 “이번 윤석열 내란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광장에서 정말 많은 요구들을 분출시킨 사회 대개혁에 대한 요구를 확인한 바 있다”며 “일단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정하고 난 이후 사회 대개혁의 요구를 수렴하고 야권이 단일화돼 이번엔 정권 교체를 실현하겠다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경선에서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참여경선제는 지난 1년 동안 6회 이상의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 선거인단과 일반 국민 선거인단을 구성해 각 1인1표를 주고 이를 합산해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반면, 비명계는 일반 국민 100% 투표를 주장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oul.co.kr

국민의힘 대권주자 ‘우후죽순’… 당 안팎 경선 전운 고조

‘원톱’ 부재 속 내부 혼선 우려

홍준표·김문수 등 출마제비 공식화 오세훈·한동훈·안철수 등 저울질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선고 이후 국민의힘 대권 잠룡들이 우후죽순 대권 출마를 예고하고 있어 치열한 경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파면 선고의 충격 속에 주말을 보냈으나, 두 달 가량 남은 조기 대선 준비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이번주 초 경선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대선 모드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와 당 중진 간담회를 가지며 혼란스러운 당 분위기를 수습하고 권영세 비상대책위원회 재선임 여부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반(반)민주당을 기치로 야권의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가장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작업에 집중할 것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비상대책위원실에서 열린 대선후보 선출 경선 일정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스시

로 보인다. 이 대표에 가장 잘 대적할 후보를 내세운 다음에 중도와 보수 이슈를 선점하며 유권자를 설득하면 여당 출신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승부가 가능하겠다는 판단이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

핵심판 기각·각하 가능성에 탄핵심판 막판 대권 행보를 자제했던 여권 잠룡들도 이번주 속속 활동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대선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은 주중 시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25번째 이사를 한다.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야간열차를 타고 상경했던 그 시절처럼 이번에는 고속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라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5일 시민단체가 개최한 ‘대선 출마 선언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욕심은 없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며 사실상 출마에 무게를 둔 발언을 했다.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파면 후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탄핵 후폭풍을 수습하는 데 집

중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친한(친한동)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정권은 무너졌고 정치는 흔들렸으며 경제는 암울하고 국민의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닌 국가의 리셋, 시대의 교체를 요구받고 있다”며 한 전 대표가 시대의 위기를 넘어설 리더라고 치켜세웠다.

범여권에서 일찍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대구·경북(TK)을 찾으며 경북 철곡에 위치한 조부모 묘소에 참배했다.

다만,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적할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다는 것도 국민의힘의 고민이다. 자칫, ‘원톱’ 없이 경선이 치러져 후보 간 비방전이 격화되면 당에도 좋을 게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박태홍 기자

탄핵 정국에 ‘연금 로드맵’ 흔들… 특위연기·제도손질 ‘차질’

‘연금 개혁’ 향방은

복지부, 모수조정 후속작업 착수 정치권선 ‘신연금제도’ 논의 확산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였던 ‘연금개혁’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린다. 조기 대선 시계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약속했던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부 기능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 오후 국민연금공단을 비롯한 관계 기관이 참석하는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해 관련법의 하위법령 개정 등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0일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현행 9% 수준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고 현행 40%인 소득대체율도 43%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와 출산·군 복무

시 국민연금 납부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연금개혁안이 탄핵 심판 전 여·야 합의 하에 공포된 만큼, 복지부의 하위법령 개정은 순탄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여·야가 ‘구조개혁’을 비롯해 개혁안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로 약속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연금특위는 지난 2일 첫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4일 탄핵 선고를 이유로 오는 8일로 회의를 한 차례 연기했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보다 많은 쟁점을 요구해 여·야 논의가 재개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결론을 내놓기 어렵다. 더군다나 여·야의 연금개혁 추진 목표에도 차이가 분명한 만큼 구조개혁을 비롯한 연금개혁의 남은 과제는 대선 이후까지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구조개혁 논의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대 간 형평성을 전제로 한 ‘신연금제도’의 도입까지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신연금제도의 도입을 직접적으로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난 1일 개최한 연금개혁 토론회에서도 신연금제도를 도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낮은 합계출산율(0.75명)에서도 미래세

대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신연금제도’의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기존 국민연금의 미적립 총당금은 재정을 투입해 정리하고, 미래의 국민연금 기금을 새롭게 적립해 미래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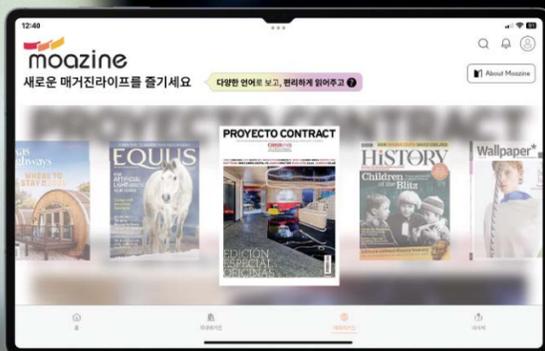
이강구 KDI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앞세대의 기대수익비(보험료로 낸 돈 대비 받게 되는 돈)가 1보다 크기 때문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모든 세대의 수익비 최대치가 1보다 클 수 없다”면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수개혁과 함께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구조개혁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산불 사고 관련 피해자 및 이재민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차에 관해 다 알고, 글로벌 경제부터
인테리어 트렌드까지 완전 전문가라는

AI 구독형 선배

AI 구독은 KT
KT는 AI



KT AI 모아진 구독

보고 싶은 해외 매거진을 AI가 번역해 주고
내 취향에 맞는 매거진도 추천해 주는 디지털 매거진 플랫폼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

KT 5G/LTE 요금제를 이용 중인 모바일 고객만 가입 가능한 구독형 상품입니다. (매거진 5종 월 4,000원/국내 매거진 무제한 월 7,000원/국내 해외 매거진 무제한 월 13,000원)/본인인증을 완료한 14세 이상의 개인 명의만 가입 가능/면세 상품으로 부가세 없음/자세한 사항 kt.com 참조

트럼프 세션, 증시 안갯속

韓, 코스피·수출·경제성장률 ‘비상’... “최악에 대비하라”

트럼프, 韓 ‘최악의 침해국’ 분류
外人, 닷새 내리 코스피 순매도세
반도체 관세조치에 추가급락 우려
尹 파면으로 정치 불확실성은 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 관세 정책이 중국 정부의 맞대응 불러 오면서 글로벌 경제와 증시가 격랑을 예고한다.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증시와 아시아 증시 모두 급락했다. 미 월가 일각에서는 “최악에 대비하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관세전쟁이 각국이 경쟁적으로 관세를 올리다 주가폭락, 실물경제 붕괴로 이어졌던 1930년대 대공황 직전 상황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국내 증시도 예외는 아니다. ‘퍼펙트 스톱’급 대내외 악재로 최악의 경우 코스피 2000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일각의 경고도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안전띠를 단단히 조여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 “최악에 대비하라” 관세전쟁 확산에 세계 금융시장 요동

트럼프의 관세전쟁에 글로벌 증시가 ‘패닉(공포)’에 빠졌다. 지난 4일(현지 시간) 기준 뉴욕증시에서 나스닥은 올해 들어 19.28%가량 하락했다. S&P도 13.73%대 추락했다. 코스피는 기저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 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에게 500만 달러(약 73억 원) 상당의 ‘골드 카드’를 보여주고 있다. /뉴시스

과로 3% 가까이 올랐지만, 최근 2460선으로 밀렸다. 일본(-15.33%), 대만(-7.54%) 등 주요 아시아 증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외환 시장도 휘청였다. 트럼프가 겨는 ‘상호관세’의 창끝이 예상보다 날카로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시장을 공포로 몰아 넣고 있다.

시장은 갈수록 악화하는 모양새다. 상화관세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를 상대로 부과한다고 발표한 10%의 기본 관세가 5일(현지 시간) 발효됐다. 이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극히 일부의 예외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대다수 품목에 적용되는 ‘보편 관세’로 볼 수 있다.

한국경제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트

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를 부과키로 하는 등 60여개 국가를 이른바 ‘최악의 침해국’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관세 10%를 5일부터 집행한 뒤 9일부터 2단계로 국가별 상호 관세(10%+알파)를 발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9월 0시1분을 기해 10%에서 25%로 올라간다.

국제무역론 교과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에서 관세전쟁의 결과는 관련된 모든 국가 소비자의 후생(welfare)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현실 속에서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살펴본다면 모든 국가, 적어도 대부분의 국

가 소비자들의 후생 감소는 매우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다.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 이 짐을 싸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양 시장에서 닷새 내리 매도세를 이어가면서 코스피 시장에서 5조 8625억원의 자금을 순유출했다. 코스닥에서도 6417억원을 순매도했다. 외국인의 지난주 코스피 순매도 규모는 주간 기준으로 지난 2021년 8월 13일(7조262억원) 이후 4년 7개월 여만에 최대치다.

이유 있는 ‘팔자’다.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국내총생산(GDP)의 40% 이상으로 다른 나라보다 높다. 대미 수출의 35%를 자동차가 담당하고, 대중 수출의 50%를 반도체 등 IT 품목이 담당한다. 이 같은 편중된 구조 때문에 ‘상호관세’의 무게는 다른 국가보다 더 무겁다.

◆ 게임들 “최악에 대비하라”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주가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주요국이 미국을 상대로 맞불을 놓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국내 경제가 반동할 만한 요인도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가 그나마 호재다.

가장 큰 악재는 악화할 대로 악화한 국제 경제다. 잘하던 분야는 죄다 중

국 등에 추월당했고, 첨단 분야는 멀찍이 뒤처졌다. 영국의 민간 연구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내렸으며, 바클리(Barclays)는 1.6%에서 1.4%, HSBC는 1.7%에서 1.4%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S&P의 경우 한국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2.0%에서 1.2%로 무려 0.8%포인트 낮추기도 했다. S&P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관세 위협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조치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데 따라 국내 반도체주의 추가 급락 우려도 있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한국 증시의 외국인 수급 개선을 위해선 4월 중 미국 경기 침체 우려 해소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 지수 탄력이 둔화한 가운데 중국형 엔터·게임·소비재 등 위주로 종목 장세가 짙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박석길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헌법재판관의 만장일치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됨에 따라 불확실성 장기화 우려가 효과적으로 제거됐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ooul.co.kr

경기침체 우려에 무너져내리는 ‘美 기술주 ETF’

美 상호관세·中 보복관세에 격랑
매그니피센트7 종목 줄줄이 급락
“부정적 영향 미치는 정책 대한 반응”

“보잘것없던 제좌에 한 줄기 희망이었는데, 이제 버려야 할 것 같네요.”

트럼프가 쏘아 올린 관세 전쟁과 그로 인한 미국 경제 침체 우려 등이 미국 주식 시장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국내의 시장에서 미 증시에 투자해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개미(개인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이들 서학개미(미국 증시관련 주식 및

상품 투자자)는 작년 내내 보통의 동학 개미(국내 주식 투자자)들보다 높은 수익을 자랑했다. 테슬라·엔비디아·애플·알리안티어 등 급성장하는 테크주를 골라 몰빵한 덕분이다. 그러나 미국 경기 침체 우려로 그간 급성장한 테크주가 가장 빠르게 무너졌고, 그간의 과실도 금세 빛이 바래고 있다.

6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미국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급락하고 있다.

최근 한 달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

수를 2배로 추종하는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는 약 33% 하락했다. ‘PLUS 미국테크TOP10레버리지(합성)’는 25% 가까이 떨어졌다.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25.47%)와 ‘TIGER 미국나스닥100레버리지(합성)’(-22.89%)도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

잠 못 드는 서학개미들도 급증하고 있다. 과감히 베팅했던 ‘기술주’가 급락하고 있어서다. 추가 손실도 예고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 관세에 이은 중국 정부의 맞대응 보복

관세 발표로 글로벌 경제와 증시가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4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팬데믹 충격이 닦인 2020년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냈다. 이날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5.50% 급락했다.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5.97% 떨어졌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5.82% 하락했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2월 16일 고점 이후 20% 넘게 하락하며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했다. 다우지수는 지난 12월 4일 고점 대비 15% 빠지며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

최근 뉴욕증시 부진은 빅테크 기업들의 부진 때문이다. ‘매그니피센트7(M7)’으로 불리는 주요 종목들 가운데 애플은 약 21% 하락했고, 메타(-22.95%), 엔비디아(-17.31%) 등도 줄줄이 급락했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올해 1분기 미 증시 순매수액은 113억2176만달러에 달했다.

앤젤레스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로젠 최고투자책임자(CIO)는 “트럼프가 관세와 무역 정책을 쉽게 포기할 것이라 보이지 않는다”며 “추가 하락은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미칠 나쁘고 일관성 없는 무역 정책에 대한(시장의) 반응”이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동남아 흔드는 ‘고율관세’... 삼성·LG 등 전자업계 직격탄

주요 생산기지도도 고율관세 부과
스마트폰 부문 관세 영향 직접적
관세 낮은 도로 고객사 이탈 가능성

미국이 오는 9일부터 베트남(46%), 중국(34%)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최대 49%의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전자업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삼성전자·삼성전기, LG전자·LG이노텍 등 주요 전자 기업들은 동남아 생산기지를 중심으로 관세 직격탄이 예상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수입품 전반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25%)을 포함한 60여 개국에 추가 관세를 적용하는 새로운 상호관세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베트남(46%), 중국(34%), 대만(32%), 인도(26%) 등 국내 기업들의 주요 생산기지도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 원가 절감을 꾀했던 한국 기업들은 생산 전략의 대대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스마트폰 부문은 타격이 불가피

하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애플의 로비로 스마트폰은 대중국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에는 예외 없이 포함됐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대부분이 중국, 한국, 베트남 등지에서 생산되는 만큼 관세 영향은 직접적이다.

삼성전자는 베트남 박닌과 타이응우옌 공장에서 연간 1억 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다.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이 중 상당수가 미국과 유럽으로 수출된다. LG전자 역시 베트남에 대규모 생산기지를 두고 있다. LG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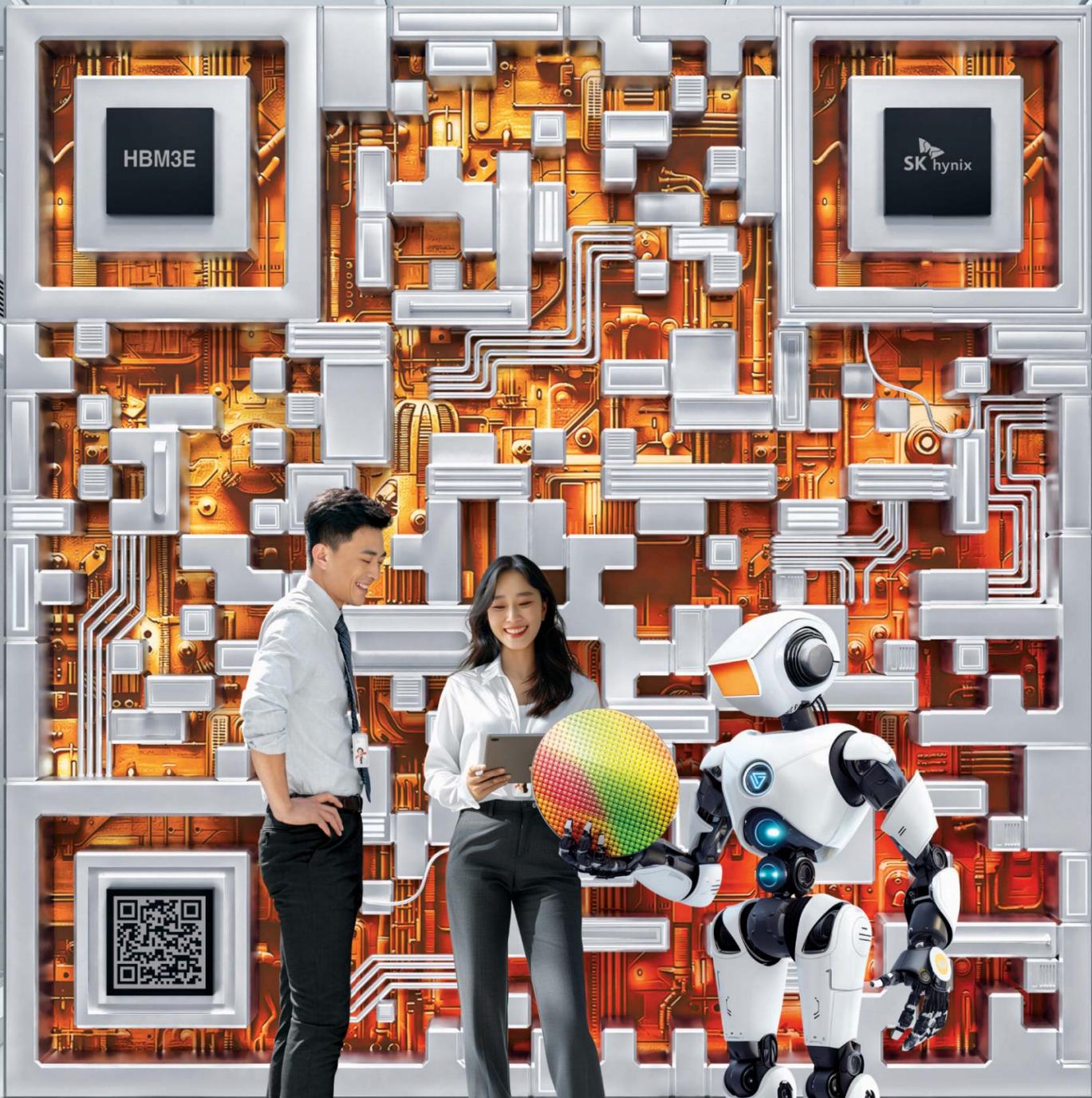
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등 계열사는 총 12개 법인을 운영 중이며, 특히 베트남 하이퐁에 대규모 가전 제품 생산기지를 가동하고 있다.

전자 부품업체인 삼성전기와 LG이노텍은 관세 부담과 함께 고객 이탈이라는 이중고에 처했다. 삼성전기는 베트남에서 첨단 반도체 기판인 플립칩 불그리드 어레이(FC-BGA)와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국 빅테크 기업 AMD에 공급할 FC-BGA 양산에도 착수했다. 다만 상호관세로 신규 고객들이 베트남 물량을 받는 데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어 추가 수주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LG이노텍은 하이퐁 공장에서 생산한 카메라 모듈을 중국 폭스콘을 거쳐 애플에 공급하고 있다. 애플은 전 세계 아이폰 판매량의 90%를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이번 관세로 중국산 제품에 기존 20%의 관세에 추가로 34%가 더해져 총 54%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아이폰 가격이 현재보다 30~40%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관세가 낮은 일본(24%) 등으로 고객사가 이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FC-BGA 시장의 강자인 일본의 이비덴과 신코덴키는 일본 현지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이다. /이혜민 기자 hyem@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기후변화 시대... '지수형 보험' 인기 급부상

자연재해 따른 경제손실 408조
리스크 관리 필요인식 높아져

객관적 지표에 의해 지급 결정
피해조사 분쟁 줄어 빠른 보상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잦아지고 경제적 손실이 커지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지수형 보험이 급부상하고 있다. 지수형 보험은 객관적 지표(강수량·풍속 등)에 따라 약정된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보험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연재해로 인한 글로벌 경제적 총 손실은 2800억달러(약 408조1840억원) 규모로 증가했다. 보험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율인 보장격차도 62%로 확대되면서 재해손실 비용을 헛지(위험회피)하는 방안으로 지수형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전통적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평가해 보험금을 산정하지만 지수형 보험은 특정 지표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즉시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피해 조사에 따른 분쟁이나 지연이 크게 줄고 빠른 보상이 가능하다.

시장 분석 업체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 지수형 보험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148억달러(약 21조5754억원)에서 오는 2032년 393억달러(약 57조2915억원)로 연평균 11.5% 성장할 전망이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리스크 관리 필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데이터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객관적 지표에 의해 보상이 이뤄지는 지수형 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수형 보험은 객관적 지표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해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보

험금의 신속한 지급 등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지수형 보험은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 위험에 대한 상품이 개발·판매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삼성화재는 지난 7일 항공기 지연 시간에 따라 정액형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출국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지수형) 특약'을 보험업계 최초로 출시했다. 해당 특약은 국내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여객기가 결항 또는 2시간 이상 출발 지연될 경우 지연 시간에 비례해 최대 10만원(6시간 이상 지연 및 결항시)까지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수형 보험은 손해보험의 기본원칙인 실손보상원칙 준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표와 발생 손실 간의 인과관계 입증에 곤란하거나 실제 손해액이 불일치할 수 있는 베이스

스 리스크(Basis Risk)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베이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복수의 트리거(Trigger) 설정이나 지급 조건 세분화 같은 정교한 설계 방안이 요구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보상 원칙에 의한 도덕적 위험 통제는 필요하나 실무적으로 엄격히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기업성 보험의 경우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보험계약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상품의 단순성이 요구되지 않는 기업성 보험의 경우 복수의 트리거(Trigger) 설정, 지급조건 세분화 등을 통해 베이스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보험 브리핑



삼성화재 봄밤의 낭만·문화 봄 나이트 뮤지엄

삼성화재는 4월부터 5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봄밤의 낭만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 '2025년 봄 나이트 뮤지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뮤지엄 방문객들이 밤에도 다채로운 체험과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야간 개장은 오는 5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3시간 연장 개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개방 공간은 전시장 1·2층, 야외공원, 야외카페와 쉼터 등이다. 방문객들은 낮과 다른 분위기의 야외 전시 및 조명 아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

비대면 고객 맞춤형 설계 문턱 낮춘 암·뇌심보 보험

롯데손해보험은 생활밀착형 보험 플랫폼 '앨리스'(ALICE™)를 통해 'FOR ME 아파도 인아파도 암·뇌심보 보험'(암·뇌심보 보험)을 출시했다.

암·뇌심보 보험은 모바일에서 확인한 질병 치료 이력을 서면 심사도 넘기지 않고 모바일에서 고객 맞춤형 플랜을 설계해주는 방식을 도입했다. 기존 질병 치료 이력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됐던 고객들도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가입 기간 내 최신 수술 기법 출시 시 해당 기법을 적용한 치료비까지 보장한다. '암 주요 치료비' 담보 하나만 가입하면 다빈치 로봇 수술, 화학 항암제 치료, 호르몬 약물치료 모두 보장받을 수 있다. 뇌심보 보험은 2대 질환인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주요 진단 및 치료비를 보장한다.

동양생명

2025 연도대상 시상식 박찬택 명인 '동양대상'

동양생명은 지난 3일 강원도 홍천군 소노비발디파크에서 '2025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설계사(FC)와 영업관리자 총 163명을 시상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한 해 동안 최고의 영업 실적을 거둔 설계사에게 수여되는 '동양대상'은 박찬택(KOA 지점)명인이 차지했다. 박 명인은 지난해 315건의 신계약을 유치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또한 장금선 명예상무(새중앙지점)가 올해에도 '대상'을 수상해 총 11번째 대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이뤘다. 장 명예상무는 2011년부터 매년 연도대상을 수상해왔고 지난해에도 338건의 신계약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주형 기자 gh471@

토허제 보류지 '신반포 메이플자이' 매각가 2배 꺾춤

29가구 매각공고... 20평대가 35억
실거주 의무 없고 전매제한도 없어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보류지의 몸값이 뛰고 있다. 작년 초 17억원에 분양했던 '메이플자이' 20평대가 35억원의 최저가로 보류지 매각에 나섰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신반포4지구(메이플자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보류지 29가구에 대한 매각 공고를 냈다. 대상은 전용면적 84㎡ 1가구와 59㎡ 28가구 등 총 29가구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60-3 일대에 들어선 메이플자이는 지하 4층~지상 35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아파트. /안상미 기자

층, 29개동으로 총 3307세대 규모다. 오는 6월 입주할 앞두고 있다. 보류지는 재건축 조합이 소송 등에 대비해 일반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주택이다. 일반

적으로 몇 가구 되지 않지만 메이플자이의 경우 대단지라 보류지도 29가구 나왔다.

매각 방식은 입찰기준가격(최저입찰가) 이상 최고가 공개경쟁입찰이다. 입찰은 오는 18일까지며, 개찰은 당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최저입찰가인 기준가는 예상보다 높다. 전용 59㎡는 A와 B타입 모두 35억원, '국민평형'인 84㎡ B4타입 1가구의 최저입찰가는 45억원이다. 모두 4층 이하 저층이다.

보류지는 일반분양과 달리 조합이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올해 들어 강남권 집값이 상승세를 탄 데다 보류지의 경우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 등이 없는 만큼 가격을 올려도 매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메이플자이는 작년 2월 일반분양을 진행했으며, 청약경쟁률은 최고 3574대 1을 기록했다. 일반분양은 중소형인 전용 43~59㎡만 물량이 나왔으며, 59㎡의 분양가가 A타입 17억4200만원, B타입 17억3300만원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보류지는 실거주 없이 임대 가능하며 전매 제한도 없다"며 "토허제로 실거주만 가능한 상황에서 보면 보류지 입찰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메이플자이는 전용 59㎡ 올해 2월 32층이 32억원에 거래됐다. 전용 84㎡는 24층이 지난달 47억원에 실거래가 신고됐다. /안상미 기자 smahn1@

금감원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받으세요

부채관리·재무관리·노후준비 등
작년 1만4742건 자문서비스 진행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노후준비 등 금융자문서비스를 이용한 경우가 1만 5000건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총 1만4742건의 금융자문서비스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1년 전과 비교해 8%(1086건) 증가한 수준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금융소비자의 안정적인 금융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를 통한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부채관리 ▲생애주기별 재무관리 ▲노후준비 등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제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상담 건수 중 재무 관련 상담은 1만 1993건으로 81.4%를 차지했다. 그 외 금융 관련

단순 상담은 2749건으로 18.6%였다.

주제별로 보면 재무 상담 중 현금흐름 관리 관련 상담이 31%로 가장 많았고, 부채관리(18%), 위험관리(13%), 저축·투자(11.8%), 세금 설계(0.6%)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 상담이 3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는 사회초년생 소득·지출 관리 등에 30~40대는 주거 자금과 자녀 교육비 마련, 부채관리 등에, 50대 이후는 연금·노후·은퇴·상속·증여 등에 관심을 보였다.

금감원은 금융자문서비스를 개인 맞춤형 자문 상담과 간단한 금융 관련 문의에 대한 일반상담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자문 상담은 사전 예약 후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으로 90여 분간 진행한다. 일반상담은 사전 예약 없이 전화상담 또는 온라인 상담(금감원홈페이지-금융자문서비스온라인상담페이지)을 통해 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헤이영 서포터즈 2기 발대식'에서 신한은행 정상형 은행장(가운데)이 서포터즈들과 발대식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은행, 헤이영 서포터즈 2기 발대식

신한은행은 대학생들 통합 플랫폼 '헤이영 캠퍼스'를 이용하는 대학생으로 구성된 '헤이영 서포터즈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헤이영 캠퍼스'는 신한은행이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대학생 전용 모바일 플랫폼이다. 지난해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대학생 모바일 신분증 기반 금융 연계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수업무로 정식 승인을 받았다.

신한은행은 전국 160여개 대학과 헤

이영 캠퍼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100개 대학에서 전용 앱을 통해 대학생 니즈에 초점을 맞춘 고객지향적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기 서포터즈는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SNS 콘텐츠 기획 ▲오프라인 행사 참여 ▲캠퍼스 연계 홍보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헤이영만의 개성 있는 브랜드 메시지를 직접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쏟아지는 AI 신제품... '가성비 하드웨어' 핵심 경쟁력 부상

빅테크 기업, 하드웨어 시장 공략
삼성·애플 등 기존 강자들 대응 나서
글로벌 AI 산업구조 변화 본격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가성비 하드웨어'를 앞다퉀 선보이며 하드웨어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기존 강자들도 대응 전략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6일 정보기술(IT) 전문지 더버지에 따르면, 구글은 499달러(약 70만원)의 AI폰 '픽셀 9a'를 미국, 유럽 등에 잇달아 출시할 예정이다. 미국은 오는 10일, 유럽 지역은 오는 14일, 호주, 인도,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등은 오는 16일에 출시될 예정이며, 일본 출시 일정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구글의 AI폰 '픽셀 9a' /구글

픽셀 9a는 구글의 최신 칩셋인 텐서 G4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6.3인치 OLED 디스플레이와 5,100mAh 배터리를 장착했다. 또 48MP 메인 카메라와 13MP 초광각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매직 에디트'와 '제미니 AI 어시스턴트' 등 AI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픽셀 9a는 카메라, 배터리, 디



삼성전자의 보급형 모델 '갤럭시A56' /삼성전자

스플레이 등 기본 성능은 갤럭시 A56과 비슷하면서도 구글의 최신 AI 기능을 모두 담고 있어 가성비 면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해 출시한 애플의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16e(599달러)보다 100달러 저렴하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A56과 동일한 가격대다.

메타와 MS 역시 AI 기능을 강화한 '저가형 하드웨어'를 지속 개발해 출시 준비 중이다.

메타는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시장에서의 주도권 강화를 위해 새로운 하드웨어를 준비 중이다. 지난해 9월 메타는 일반 안경과 유사한 디자인에 AR 기능을 탑재한 AR 글래스 '오리온'을 처음 공개했다. 출시 일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또 메타는 VR 헤드셋 '퀘스트 3S'를 오는 10월 15일 합리적인 가격대에 출시할 예정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에이서(Acer), 에이수스(ASUS), 델(Dell), HP 등 주요 브랜드와 협력해 AI 기능을 강화한 '코파일럿+' PC를 지난해 6월 처음 선보이며 AI PC 시장에 진출했다.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의 공세에 대응하여 삼성전자와 애플도 중저가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28일 보

급형 '갤럭시 A' 시리즈 신제품을 출시하며 AI 기능을 중저가 모델에 최초로 적용했다. 출고가는 499달러로 책정됐다. 올해 말 미국 시장에도 출시될 예정이라 구글의 픽셀 9a와 맞붙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 역시 빅테크의 AI 하드웨어 공세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애플은 iOS 생태계의 폐쇄성과 독자적인 AI 기술 개발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애플의 강점은 자체 개발한 애플 실리콘 칩을 기반으로 한 AI 성능 최적화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의 우위다. 또한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애플페이 등 강력한 생태계 장벽으로 고객 이탈을 방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보급형 모델 '아이폰 16e'를 출시하며 중저가 시장 공략에 나섰다. 87만 원대의 가격으로 보급형으로서의 매력도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주요기업 실적 발표... 반도체 '흐림' 車 '맑음'

LG, 삼성, 현대차·기아 등 발표
대내외 악재 영향... 업종별 희비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실적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이 이번 주부터 1분기 실적 발표를 공개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탄' 등 대내외 악재 영향권속에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7일, 삼성전자는 8일 올해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이후 국내 주요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이어간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각각 7조 1928억원, 5조 134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7.3%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2.3% 감소한 수치다. 모바일과 PC용 D램 수요 약세로 생산량 증가율이 한 자릿수로 위축되었으며 고대역폭메모리(HBM) 역시 미국 정부의 HBM 중국

수출 통제 등 영향으로 판매 부진을 기록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또 TV·가전 경쟁 심화와 디스플레이 수익성 둔화 등도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2분기에도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로 인한 수요 변수는 여전히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LG전자는 신형 시장에서의 프리미엄 가전제품의 흥행으로 실적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LG전자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22조 668억원, 1조 25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 증가, 5.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컨센서스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경우 지난해 2분기(1조 1961억원) 이후 3분기 만에 1조원대 분기 영업이익을 회복한다. 이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신형 시장에서 프리미엄 가전의 판매 상승과 물류비 절감 영향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LG전자는 냉장고와 세탁기 등 생활가전을 주력 판매하는 만큼 해상 물류비는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완성차 업계는 트럼프발 '관세 폭탄'을 앞두고 1분기 견조한 판매 수치를 기록하며 선방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의 1분기 글로벌 판매량은 100만 7000대로 연간 판매 목표(417만 4000대)의 24.1%를 달성했고, 기아는 1분기에 77만 2000대를 판매하며 창사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차의 1분기 매출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6.41% 증가한 43조 2672억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2.03% 증가한 3조 6298억원으로 예측됐다. 기아 역시 1분기 매출은 5.32% 증가한 27조 6092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이익은 5.91% 감소한 3조 2230억원선으로 전망됐다.

현대차·기아의 실적은 2분기부터 트럼프 관세 폭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3월부터(현지시간) 수입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전자, '공급망 인권 관리' 글로벌 1위

노우더체인, ICT 상장기업 평가

삼성전자가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중 공급망 인권 관리 책임에 가장 우수한 기업으로 평가받았다.

국제 기업인권리소스센터 산하의 비영리기구인 '노우더체인' 평가에 따르면 글로벌 주요 ICT 상장기업 45곳을 대상으로 공급망 인권관리를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는 100점 만점 중 61점을 기록해 1위를 차지했다.

노우더체인은 글로벌기업의 공급망 인권관리와 강제노동 수준을 2년마다 평가하며 ▲정책 및 거버넌스 ▲공급망 투명성 및 리스크 관리 ▲구매 관행 ▲채용 ▲근로자 권리 ▲모니터링 ▲개선 조치 등 총 7개 분야로 진행된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속적인 공급망 인권 경

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인정받으며 2022년 평가 대비 15점 상승했다. 특히 '정책 및 거버넌스', '채용', '공급망 투명성 및 리스크 관리' 부문에서 각각 높은 점수를 받았다. 10위권내 회사중 지난해 평가 대비 점수가 오른 회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했다.

60점 이상을 받은 곳은 삼성전자가 유일했고 HPE(53점), 시스코(51점), HP(51점) 등이 50점대에 올랐다. 애플은 46점을, AMD, 인텔, 아마존 등은 30점대였다. 중국 ICT대표기업 BOE는 0점으로 45위였다.

노우더체인은 "삼성전자가 공급망 인권 관리 책임의 모든 분야에서 정보 공개를 강화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면서 "특히 강제노동 관련 위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혜민 기자

LG엔솔, 美 배터리 인재 육성 박차

애리조나 인재교육센터 오픈 행사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내 첫 원통형 배터리 공장의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인재 교육 본격화 등 현지 스킴십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애리조나 법인에 애리조나 상공회의소 및 지역 정부 주요 지역 관계자를 초청해 공장 건설 현황을 소개하는 한편 인재교육센터 오픈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나희관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법인장(상무)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공장 건설이 절반 이상 완료됐다"며 "내

년 중반 시제품 생산을 시작해 연말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 주정부 및 지역 교육 기관과 협력해 새 인재 교육 센터에서 신규 직원 교육을 시작했다. 이 센터는 애리조나 주의 고용 지원정책프로그램에 따라 설립됐으며 주 상무국, 피널 카운티, 센트럴 애리조나 칼리지와 협력해 운영된다.

애리조나 공장은 오는 2027년까지 약 15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첨단 제조업 허브로서의 애리조나 위상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회

사 측은 설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미국 내 총 7개 공장을 운영 또는 건설 중이다. 이번 애리조나 공장 가동을 통해 현지 생산 역량을 더욱 확대하고 전기차 시장의 다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 애리조나에서 생산될 원통형 46시리즈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미국산 배터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맞춰 추가적인 공급도 논의 중이다.

나 법인장은 "애리조나 공장은 단순한 생산 시설을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현지 인재를 육성하고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최고·최초의 경험을 선사하고 미국 내 전통화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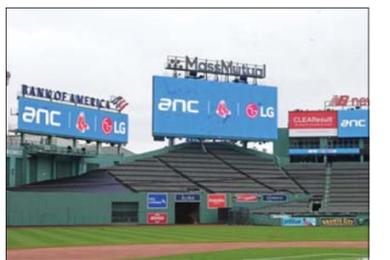
LG전자, '펜웨이 파크'에 디스플레이 공급

초대형 LED 메인 스코어보드 등 설치

LG전자는 미국 메이저리그(MLB)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에 초대형 상업용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공급했다고 6일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3월 말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펜웨이 파크에 가로 30.5m, 세로 11.5m, 총면적 350.75㎡(약 1280인치)의 초대형 LED(발광다이오드) 메인 스코어보드를 설치했다. 이 외에도 가로 21.6m, 세로 7.9m 크기의 대형 리본보드를 포함해 총 842㎡ 면적의 다양한 디스플레이 11개를 공급했다.

설치된 LED 디스플레이는 밝고 어두운 화면을 세밀하게 표현하는 HDR 기술을 적용했으며, 야외 스포츠 경기장 환경에 최적화된 7000니트 이상의 고휘도와 IP65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



펜웨이 파크 곳곳에 LG전자의 LED 사이니지가 설치된 모습. /LG전자

을 갖췄다.

또한 LG전자는 보스턴 레드삭스 구단주인 펜웨이 스포츠 그룹의 광고 및 운영을 담당하는 에이전시 ANC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공동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미국 전역의 스포츠 팬들에게 혁신적인 경기장 내 엔터테인먼트 경험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韓·中 배터리 특허갈등 '재점화'

LG화학 겨눈 中 무효심판 논란

中 국가지식재산국 무효심판 접수
업계 “中 1위 룽바이 배후” 의심
보복성 맞불 특허전쟁 양상 확산
정부·기업, 글로벌 IP대응 강화 나서

중국에서 LG화학 양극재 기술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이 제기돼 첨단기술 특허 분쟁이 다시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가열 중인 가운데 국가를 뛰어넘은 기술·지식재산권 갈등도 점차 깊어지는 양상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에 LG화학의 삼원계(NCM) 양극재 기술에 대한 특허 무효심판 신청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개인으로 등록됐지만 업계는 중국 1위 삼원계 양극재 업체인 '룽바이'가 배후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는 이유는 LG화학이 지난해 룽바이의 한국 자회사인 제세능원을 상대로 특허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전례가 있어서다. 당시 LG화학은 제세능원이 자사의 NCM 양극재 특허를 무단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업계는 중국의 이번 무효심판 청구가 '보복성 대응'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한중 기업 간 특허소송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중국 에스볼트가 삼성SDI와 SK온의 배터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으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차전지 관련 특허출원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평균 13%씩 증가하며 가파른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 전경.

/LG에너지솔루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배터리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국은 공격적인 특허 출원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중국 CATL은 총 3만1896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국내 주요 배터리사 중에는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총 2만8255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 중이며 이중 국내 등록 특허는 1만3392건, 해외 등록 특허는 1만7411건이다. 삼성SDI와 SK온은 각각 2만2030건, 4569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을 겨냥해 '특허 무임승차'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회사 측은 실제 경쟁사가 침해한 것으로 확인된 특허 수가 580건에 달한다며 시장 왜곡을 방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최근 “당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무분

별한 특허 침해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미국·유럽·중국 등 현지 전문가를 확보해 글로벌 소송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해외 IP오피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배터리 분야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분야를 지난 2024년 2월부터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전문심사관 증원 및 전담 심사 조직을 신설하는 등 기업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특허는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수익 창출 수단이 된다”라며 “특허를 통해 로열티를 받거나 경쟁사를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기업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LX하우시스, 친환경 가구용 필름 선보여

스톤, 우드 등 66종 출시

LX하우시스가 식물성 원료를 적용해 만든 '바이오(Bio) SMR 가구용 필름'을 선보였다.

6일 LX하우시스에 따르면 '바이오 SMR 가구용 필름'은 LX하우시스만의 차별화된 SMR(무광택 표면) 코팅 기술로 만든 PET 필름에 바이오 탄소 코팅을 추가로 적용한 제품이다.

바이오 탄소는 식물 등 생물학적 원료에서 추출한 탄소를 기반으로 한 소재로, 화석연료에서 유래한 탄소와 달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친환경적인 원재료로 점차 활용도가 높아지며 국내외 가구 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다.

'바이오 SMR 가구용 필름'은 LX하우시스만의 SMR 기술로 최근 가구시

장에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무광택 표면 질감을 구현함은 물론 스톤·우드 등 자연 소재 느낌의 디자인을 담은 총 66종을 출시했다.

무광택 제품 특유의 단점인 스크래치와 오염에 약한 문제를 개선하고 손자국(지문 등)이 묻어나지 않는 점도 특징이다.

LX하우시스는 필름 제품은 물론 무광택 표면 질감과 바이오 탄소 코팅이 똑같이 적용된 보드(MDF판에 필름 부착) 형태의 제품 'LX Z:IN 가구용 보드(보르메7)'도 동시에 출시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가구사들이 환경 친화적인 제품 라인을 확대하면서 탄소배출량 저감에 도움을 주는 원료를 사용한 가구용 필름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부, 지역상권 '부활 프로젝트' 가동

지역상권활력 사업 컨소시엄 모집
합동 평가해 2곳 선정, 1곳당 20억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부터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지자체·주관기관(상권기획자)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모집한다.

6일 중기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진행하는 '지역상권활력지원'은 지난해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방안' 후속 추진 사업이다. 인구감소·관심지역 내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기획한 상권발전 전략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지원한다. 중기부는 주도사업인 지역상권활력지원의 공모절차 및 사업 운영을 총괄하며 민간에서 기획한 상권발전 전략의 실행을 지원한다. 또한, 전문지원기관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계획의 사전컨설팅, 사업비관리 등을 담당한다.

행안부는 공모에 선정된 상권이 포함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해 지원한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의 선정 우대부터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용자 등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관광객 유치에 위해 지역의 쇼핑편의서비스(외국인 결제시스템 등) 개선 등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사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모집하는 지역상권활력지원은 5월2일까지 접수를 받고 부처 합동 평가를 통해 최종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후 2년간 한 곳당 최대 20억원(국비와 지방비 50대 50)을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행안부가 발표하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의 점포수 50개 이상인 예비상권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기초지자체와 민간의 상권기획자가 주관기관으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해 함께 신청해야 한다.

주관기관은 상권구역의 상권브랜드, 소상공인 교육 등 소프트웨어전략부터 공간 리모델링, 공동시설 조성 등 하드웨어 구축·개선까지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김승호 기자

현대차·기아, 전기차 누적 판매 50만대 돌파

'E-GMP'가 성장 견인차 역할
아이오닉5·EV6 등 흥행 주도

현대차·기아·제네시스의 국내 전기차 누적 판매가 14년만에 50만대를 돌파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기반 전용 전기차 판매가 흥행했기 때문이다.

6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 제네시스의 국내 전기차 누적 판매 대수는 지난 3월까지 50만2036대로 집계됐다. 브랜드별 판매 대수는 현대차(제네시스 포함) 29만1608대, 기아 21만 428대다.

이는 지난 2011년 7월 국내 첫 양산형 전기차인 '블루온'을 출시한 지 14년 만에 달성한 기록이다.

판매량은 지난 2021년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하는 아이오닉5, EV6 출시를 기점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1년 두 브랜드의 전기차는 2020년(2만 7548대) 대비 160% 뛰어오른 7만1447대가 판매됐다. 2022년에는 처



현대차 아이오닉5.

/현대차

음으로 연간 10만대를 돌파한 11만 9791대를 팔아치우며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고 2023년 역시 11만1911대를 판매하면서 2년 연속 10만대 판매량을 달성했다.

또한 현대차·기아는 지난 3월까지 전용 전기차만 총 21만5058대를 팔았다. 전기차 전체 판매 대수의 43%를 차지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탑재된 전기차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기종별로는 아이오닉5 8만3555대, EV6 6만4491대, 아이오닉6 2만6446

대, EV3 1만8569대 등이다.

올해 역시 현대차는 플래그십 SUV 아이오닉9, 기아는 전동화세단 EV4를 선보이며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아이오닉6의 부분변경 모델 더뉴 아이오닉6, 기아 최초의 PBV 모델 PV5, 준중형 전기 SUV EV5 등도 출격을 앞두고 있다. 승용차 외에도 상용차인 현대차 포터 II 일렉트릭은 올해 3월까지 8만 4919대가 팔리며 현대차·기아 전기차 중 누적 최다 판매를 기록하고 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봄바람 타고 쌩쌩... 렌터카 수요 '활짝'

중대형 SUV·승합차 '인기'

렌터카 업계에도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본격적인 봄철 시즌이 시작되면서 이번주 렌터카 이용 고객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그린카 카셰어링 서비스 '롯데렌터카 G car'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봄철 시즌 차량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화 후 7일을 기점으로 차량 대여 수요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 car의 차량 대여 건수는 개화 전 대비 15.4% 증가했으며 평균 대여 시간과 주행 거리도 각각 7.5%와 6.3% 늘었다. 봄철 명소를 방문하기 위해 더 오래, 더 멀리 이동하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벚꽃 개화 시기가 다가올수록 서울·경기 지역의 차량 대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근교 벚꽃 명소를 찾아 나서는 수도권 고객이 많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국적으로는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첫째 주에 차량 대여가 가장 활발했다. G car는 올해 역시 4월 첫째 주 주말인 5일과 6일이 여행 대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벚꽃 시즌의 카셰어링 수요가 전 연령대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30~50대 회원들의 평균 대여 시간과 주행 거리가 개화 이후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여 건당 주행 거리는 개화 시기 전보다 최대 30%까지 늘어났다.

/양성운 기자 ysw@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요즘 **잘** 나가는 가전! 최저가로 **잘** 사는 방법!

부담 없이 최대 60개월까지, 쓰면서 나눠내세요.

상담문의 1855-1082
rental.lghellovision.net 에서 원하는 가전을 찾아보세요

헬로렌탈
바로가기 QR



빅테크 기업도 '혼란'... 트럼프 관세에 GPU 불확실성 '쑥'

GPU, 관세대상 제외 여부 '주목' M7 시가총액 1조달러 넘게 증발 아마존·테슬라 CEO, 불만 표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휩싸였다. 인공지능(AI) 산업을 비롯한 첨단 기술 기업들은 관세 적용 여부도 예측하지 못한 채 전례 없는 혼란을 겪으며, 긴급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고전하고 있다.

6일 미국 IT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AI 기업들은 트럼프의 관세에 그들을 파멸로 몰고 갈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첨단 산업계 전체가 혼돈에 빠졌고, 대외 통상 변수로 기술 기업의 시가총액이 1조달러(약 1461조원) 이상 증발했다.

핵심 쟁점은 AI 컴퓨팅 등에 필수적인 GPU(그래픽처리장치)가 트럼프의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5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관세 정책의 핵심 인사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을 공개적으로 조롱했다. /머스크 X 캡처

관세 대상에서 제외될지 여부인데, 더버지는 워싱턴 정가에서조차 이 상황을 명확히 아는 사람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더버지는 칩셋(반도체 지원법)을 담당하는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백악관, 미 무역대표부(USTR)에 문의했으나 모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GPU 공급망 불안은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에 특히 큰 타격을 입혔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데이터센터의 AI 인프라 운영을 위해 수천개의 GPU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관세 발표 후 '매그니피센트 세븐(M7, 애플·MS·알파벳·아마존·엔비디아·메타·테슬라)'의 시가총액은 1조달러 넘게 급감했다.

전문학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 CEO들은 트럼프

의 관세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며 몸을 사리고 있다. 현재까지 M7 기업 대표 중 관세에 대해 직접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낸 인물은 없지만,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대표와 테슬라 CEO 엘론 머스크 등은 우회적인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이 소유한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관세가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은 것을 두고, 간접적으로 관세 정책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또 머스크는 5일(현지 시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우파 정당 '동맹당(League Party)'의 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미국과 유럽 간 관세를 전면 철폐해 자유 무역 지대를 만들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머스크는 "유럽과 미국 모두 '제로 관세'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길 바란다"면서 "이상적으로는 유럽과 북미 간에 자유 무역 지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거리를 두는 듯한 발언을 한 데에는, 테슬라가 미중 무역 갈등과 유럽과의 통상 마찰이라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이후 중국 수입 부품 의존도가 높고 유럽 시장 점유율 확보가 불투명해진 테슬라의 주가도 급락했다.

같은 날 머스크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핵심 인사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고문을 겨냥해 조롱 섞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게시된 나바로의 관세 논리 설명 영상에 대해 "하버드 경제학 박사학위는 좋은 게 아니다"며 "지능에 비해 비대한 자아라는 문제를 낳는다"고 맹비난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우아한형제들, 배달·커머스로 매출 증가세

지난해 매출 4.3조, 영업이익 6408억 높은 수수료로 '이중가격제' 시행 등 외식업계 불안한 움직임 지속 우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지난해 6000억원대의 흑자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배달 수수료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배달업계 1위 기업으로서의 위상에 흠이 가고 있다.

6일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조3226억원, 영업이익 6408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26.6% 증가했지만, 외주용역비 등 영업비용 증가로 영업이익은 8.4% 감소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주력 사업인 음식 배달 서비스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한 가운데, 배민B마트와 장보기·쇼핑 등 커머스 서비스도 빠르게 성장하며 견고한 매출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매출 구분별로는 음식 배달 서비스와

중개형 커머스(장보기·쇼핑) 등 실적을 나타내는 서비스매출이 3조5598억원으로, 전년(2조7187억원) 대비 30.9% 증가했다.

음식 배달 서비스는 구독 프로그램인 배민클럽을 중심으로 무료 배달 혜택 제공과 인기 프랜차이즈 브랜드 할인 등 강력한 고객 유인책을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어갔다는 평가다.

배달의민족이 핵심 주력사업으로 육성 중인 장보기·쇼핑 부문은 주문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69%, 거래액은 309% 성장했다. 배민B마트 등 상품매출은 7568억원으로, 전년(6880억원) 대비 10% 증가했다.

고공행진 중인 성장세에도 불안 요소는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높은 배달 수수료로 인해 주요 대형 프랜차이즈 업소들이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외식업계 전반에 불안한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수수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주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 중개 수수료가 사실상 배달업 기업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소수 시장지배적 사업자 간 암묵적 담합 가능성도 있다"며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일방적인 약관 변경 등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된 상생협의체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지 못했다"고 배달 앱 자율규제위원회를 평가했다.

배달의민족 측은 수수료 문제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의 김용석 대외커뮤니케이션센터장은 "최근 논란이 된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정책에 대해서는, 포장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무료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포장 서비스 대상 마케팅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



박준 SK텔레콤 AI 인텔리전스사업본부장(부사장), 박창석 신한카드 전략사업그룹장(부사장), 고현덕 KCB CB사업부부장, 장성욱 카카오모빌리티 미래사업실장(부사장), 정우진 이마트 마케팅 담당, 이철형 SK브로드밴드 AT/DT개발실장(왼쪽부터)이 지난 3일 그랜데이터 업무 협약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SK텔레콤

SKT, 민간데이터 결합사업 외연 확장

이마트, '그랜데이터' 신규 참여

SK텔레콤이 주도하는 민간 데이터 결합 사업 '그랜데이터(GranData)'가 유통 대기업 이마트를 신규 참여사로 맞이하며 사업 외연 확장에 나섰다. 또한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기업 스노우플레이크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 유통 채널 다변화도 본격화한다.

SK텔레콤은 6일 SK텔레콤·SK브로드밴드·신한카드·KCB·카카오모빌리티 등 기존 참여사에 이어 이마트가 그랜데이터 얼라이언스에 새롭게 합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서울을 지로 SK T타워에서는 이마트와 데이터 협력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하고, '그

랜데이터 서밋 2025'를 개최해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했다.

2021년 출범한 그랜데이터는 통신, 금융, 모빌리티 등 민간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익명·가명 처리해 공공 및 산업 분야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결합 플랫폼이다.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와 함께 공공기관·기업의 활용이 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은 이를 통해 창업자 맞춤형 상권 분석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신규 참여사인 이마트는 신세계포인트가맹점의 소비 정보와 유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공공부문에선 취약계층 소비 분석, 민간부문에선 유통 전략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현 기자

카카오게임즈 '오딘' 글로벌 출시 확정 태국서 쇼케이스 개최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3일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개발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오딘: 발할라 라이징'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태국에서 쇼케이스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오는 29일 '오딘'의 글로벌 출시 소식, 사전 등록 및 캐릭터명 선점 이벤트 정보가 공개됐다.

현장에는 카카오게임즈 이시우 최고사업책임자(CBO)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김남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CD) 등이 참석해 게임 특징과 글로벌 서비스 전략을 소개했다. /최빛나 기자 vlna@

LG U+, '글로벌대학 30' 사업 파트너 참여

백석대 AI 인프라 구축 등 지원

LG유플러스가 백석대학교와 협력해 '2025 글로벌대학 30' 사업의 핵심 기술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양측은 AI 인프라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학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며, 교육 행정과 지역 산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백석대는 교육부의 글로벌대학 30사업 예비선정에 도전 중이며, LG유플러스는 ▲AI 인프라 구축 ▲AI 플랫폼 제공 ▲AI 응용 서비스 공동 개발 등 3개 분야에서 기술 지원에 나선다. 전산센터, 통신망, 고성능 GPU 및 MLOps 기

반의 AI 모델 운영 환경 등 폭넓은 기술이 포함된다.

플랫폼 구축에는 LG AI연구원이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엑사원(EXAONE)'과 경량화된 검색 기반 생성형 AI '익시-래그(ixi-RAG)', 콘텐츠 생성 플랫폼 '포터튜움(PortertuM)' 등이 활용된다. 이를 통해 학사 운영, 교육 행정, 지역 산업 연계 서비스 등을 통합한 전용 AI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맞춤형 학사관리, 대학 행사 기획, 해협(HACCP) 기반 AI 위생관리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AI 워크에이전트'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KT, 오리지널 콘텐츠 독점 풀고 OTT 개방

'지니 TV 오리지널' 유통전략 개편

KT가 자사 IPTV 콘텐츠 브랜드 '지니 TV 오리지널'의 유통 전략을 전면 개편하며, 기존 독점 방식을 탈피해 다양한 OTT 플랫폼으로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KT는 그동안 지니 TV 오리지널 콘텐츠를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대표작 '유어 아너' 공개 당시에는 월정액 가입자가 40% 이상 증가한 바 있다.

개편된 유통 전략은 ▲개방(Open)

▲브랜드 가치 강화(Brand Value) ▲글로벌 확장(Global)의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KT는 기존 IPTV 단독 공개 방식을 벗어나, 외부 OTT 플랫폼과의 동시 공개를 확대한다. 지난 3월 '라이딩인생'을 티빙과 지니 TV에서 동시 공개한 데 이어, 오는 4월 7일 공개되는 '신병 3'도 티빙과 동시에 서비스된다.

또한 KT는 콘텐츠 제작 역량을 앞세워 '월메이드 콘텐츠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서현 기자

美 관세전쟁 경고에 '전차군단' 휘청... 車·반도체株 직격탄

트럼프, 반도체 관세 도입 압박
SK하이닉스·삼성 외국인 매도
현대차·기아 주가 목표 줄줄이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자동차에 이어 한국 수출 주력 품목들이 잇따라 '관세 폭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뉴시스

'전차군단(삼성전자·현대차·기아차)' 주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며, 자동차에 이어 한국 수출의 핵심 품목들이 잇따라 '관세 폭탄'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3월 31일~4월 4일) 동안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1조7100억원), 삼성전자(1조1000억원), 현대차(3200억원) 등 상호관세 타격을 입은 기업들이다.

특히, SK하이닉스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종목이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관세 우려가 확산되면서 매도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유 있는 '팔자'라고 해석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S&P는 대미 수출 상위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업종 등이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S&P는 미국의 전기차 지원 축소가 전기차 판매 둔화를 초래하고 미

국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전기차 밸류체인 전반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국내 수출 118만대 중 미국향은 64만대(54%)이며, 기아 국내 수출 101만대 중 미국향은 38만대(38%)에 달한다.

현대차·기아가 국내 수출을 미국 중심으로 해 왔던 만큼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와 기아가 한국 외에 완성차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베트남(상호관세 46%), 인도(26%), 인도네시아(32%) 등도 한국보다 상호관세율이 높기 때문에 돌파구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문용권 신영증권 연구원은 "상호 관세 및 수입차에 대한 관세를 국가별 협상을 통해서 조율하지 않는 한 미국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관세 회피를 위해 미국 현지 생산을 늘릴수록 국내 공장의 미국향 수출 감소는 불가피한데, 이는 글로벌 자동차 생산 5위에서 7위로 떨어진 한국 자동차 생산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증권가에서도 현대차·기아에 대한 투자이견과 목표주가를 하향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투자증권은 현대차·기아에 대한 투자이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했다. 2일에는 iM증권이 현대차의 목표주가를 기존 32만원에서

28만원으로, 기아는 15만원에서 13만원으로 내려잡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 추가도 관세전쟁의 그늘에 있다. 트럼프는 3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취재진과 만나 "반도체 관세는 곧 시작될 것(very soon)"이라며 도입이 임박했음을 공식화했다.

다만 S&P는 하이테크 반도체 산업은 인공지능(AI) 수요 증가에 힘입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전가할 수 있을 것으로 짚었다.

메모리 가격도 반등하고 있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메모리 수급 밸런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른 시기에 안정화되면서 가격 상승 전환 시기가 빨라졌다"며 "올해 영업이익의 상향으로 인해 주가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메모리 업황이 호황으로 돌아서게 되면 밸류에이션 또한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농심 웃고, 삼양은 울상... 생산지가 갈랐다 '30년 뚝심' 국산 씨앗, 글로벌 밭 일군다

농심, 美 현지 생산으로 가격 경쟁력
삼양, 국내 생산 수출... 대응책 고심



농심 신라면 차량이 미국 시내를 누르고 있다. /농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관세 정책이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 라면업계 대표 주자 농심과 삼양의 희비가 갈릴 전망이다. 미국 내 공장을 보유한 농심은 현지 생산으로 관세 리스크를 피해간 반면 삼양은 전량 수출 구조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두 기업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면서 동일 산업 내에서도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26% 상호관세 부과를 포함한 국가별 관세율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내 제조업 보호 및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거래되던 한국의 수출 중심 기업들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농심, 미국 내 경쟁력 더 커질듯

특히 라면은 지난해 대미 가공식품 수출 1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출 비중을 자랑한 품목이다.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내 라면 점유율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심은 2005년 미국 LA에 첫 공장을 세웠고 2022년 2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총 2개 공장을 통해 연간 최대 8억5000만개의 라면을 공급 중이다. 미국 내 공장서 생산되는 상품은 현지 생산이라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농심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매출 비중이 34%가량이었지만 이 비중은 2021년 37%, 2022년 39%, 2023년 39% 등으로 높아졌다. 농심의 전체 영업이익 가운데 40%가량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은 농심의 가장 큰 해외 시장으로 미국 내 시장점유율은 25.4%다. 미국 시장에서 50%가량의 지배력을 보유한 일본 종합식품기업 도요수산에 이은 2위다.

◆삼양식품, 관세 리스크 불가피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양식품이 '불닭볶음면'을 100% 국내에서 생산에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김동찬 삼양식품 대표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관련 TF를 구성해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결론낸 부분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외 생산공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토중이며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코스닥 기업 탐방

아시아종묘



아시아종묘 본사 모습. /아시아종묘

서울 송파구에 자리한 아시아종묘. 사무실 한쪽 벽에는 '세계인의 먹거리를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30년 넘게 한국 종자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이 회사가 국산 종자의 세계화를 목표로 내건 철학이다.

한때 한국의 채소 종자는 외국산에 크게 의존했다. 토마토, 고추, 양배추 등 농가에서 흔히 재배하는 작물의 씨앗조차 외국 기업에서 들여와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아시아종묘가 자체 개발한 종자들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로 뻗어나가고 있다.

외국산 의존 넘은 종자 자립 선언
혈당잡는 고추·보랏빛 청경채 주목
R&D 투자로 스마트팜 시장 공략

지난 1992년 '아시아나 종묘'로 출발한 이 회사는 2004년 법인 전환, 2018년 코스닥 상장을 거치며 한 단계씩 성장해 왔다. 현재 양배추, 콜라비, 수박, 토마토, 오이, 멜론 등 다양한 품종을 자체 개발해 국내외 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작물 개발에 주목한다. 단순한 생산량 증가를 넘어 건강 기능성을 갖춘 종자는 최근 글로벌 종자 시장에서도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아시아종묘가 개발한 '미인꽃고추'가 대표적이다. 매운맛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혈당을 낮추는 성분(AGI)이 함유돼 당뇨병 환자들의 식단에 활용할 수 있다.

청경채도 한 단계 더 진화했다. 보랏빛 잎을 띠는 '자색 잎 청경채'는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자층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시아종묘의 경쟁력은 탄탄한 연구

개발(R&D)에서 나온다. 국내 종자 업계에서는 연구개발이 쉽지 않다. 높은 비용과 인력 부담 탓에 많은 회사들이 종자 유통에 집중하지만, 아시아종묘는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이를 연구개발 인력으로 채우고 있다.

경기도 이전, 전북 김제, 전남 해남·영암에 있는 국내 4개 육종연구소에서 신 품종 개발이 한창이다. 해외 연구소도 운영 중이다. 인도와 베트남 법인에서는 현지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연구·개발하며 글로벌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류경오 아시아종묘 대표는 "농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 병충해, 스마트팜 확산 등에 맞춰 새로운 품종을 꾸준히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종묘는 해외 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등 동남아 시장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인도와 베트남 연구소에서는 현지 농업 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품종을 개발 중이다.

도시농업과 스마트팜 같은 미래 농업에도 적극적이다. 2018년, 경기도 하남에 도시농업 전문 매장 '채가원'을 열고 도시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키우며 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단순한 종자 판매를 넘어 도시농업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도 준비 중이다.

/김대환 기자 kdh@

금감원, 전직·진학으로 이탈 움직임 확산

승진 부담·높은 업무 강도에 이동

"다닐수록 현타(현실자가 타임) 오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자소서(자기소개서) 준비해야지."

'꿈의 직장'으로 불리며 취업생들 선망의 대상이었던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최근 이직을 하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 업무 강도가 높아진 데다 승진 후 재취업이 까다로워지기 전에 외부로 나가려는 수요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6일 인사혁신처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 국장급 인사들이 대거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공직자 취업 심사에서 금감원 인사 7명이 취업 가능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국실장급 75명 중 74명을 교체한 대규모 인사 이후 조직 내 불안감이 커지면서 승진보다는 이직을 고려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특히 1급 승진보다 2급 이직을 택한 이들이 눈에 띈다. 3월 심사를 통과한 2급 간부 5명은 이번 달부터 키움증권 전무, 경남은행 상무, 부산은행 상무, 우리카드 상근감사위원, 유진투자증권 감사총괄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금감원 출신의 한 관계자는 "이들이 조사국이냐 검사국이었던 이력을 보고 데려

간 것이니 능력이나 업무연관성은 보고 채용한 것이고 '선·후배' 의식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업권이 아니더라도 법무법인 세종, 주식회사 크림, 롯데칠성음료 등 다양한 곳으로 재취업에 성공하는 사례도 있다.

이직의 배경에는 '1급 승진의 불리함'도 있다. 1급 직원은 퇴직 후 3년간 금감원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취업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2급 이하는 퇴직 전 5년 동안의 담당 부서와 관련된 업무로만 심사를 받아 이직이 상대적으로 쉽다.

저연차 직원들도 업무 강도를 회피하기 위해 휴직이나 이직을 고려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취약계층·1인 자영업자 생활자금 융자... “이자 부담 낮춘다”

근로복지공단-IBK기업은행

이차보전 협약 맺고 다음 달 시행
중위소득 이하, 최대 1000만원 융자
공단 금리 일부지원 4만명 수혜 예상

근로복지공단과 IBK기업은행이 저소득 근로자, 노무제공자, 1인 자영업자의 생활 필수자금 지원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두 기관은 협약을 맺고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협약을 통해 IBK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이자를 일부 지원한다.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가 결혼이나 자녀 양육으로 생활 필수자금이 필요한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융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근로자의 신용대출 금리가 5.8%로 결정된 경우, 공단에서 3%를 지원하고 근로자는 2.8%에



지난 4일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왼쪽 3번째)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왼쪽 4번째)이 서울 중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근로자 금융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

당하는 이지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사업 규모는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기업은행에서 도합 1000억 원의 융자를, 공단이 30억 원의 이자를 지원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공단은 그간 취약계층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등의

생활 필수자금을 담보 없이 연이율 1.5%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공단의 한정된 예산만으로는 늘어나는 융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은행자금을 재원으로 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새로 도입하게

됐다.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 등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차보전 융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융자 대상은 중위소득 이하

인 근로자·노무제공자·1인 자영업자이다.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또는 7세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또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근로자는 이차보전 융자뿐만 아니라 기존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복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별 대출 한도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에서 가능하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공공데이터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치면 별도의 증명서류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더욱 많은 취약 근로자 등이 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차보전 융자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농업수입안정보험 첫발... ‘봄감자’부터 전국 확대

농식품부, 농가 소득 불안정성 완화 자연재해·가격하락 등 모두 보장 21일 고구마·옥수수 등 판매 개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입이 7일 봄감자 품목을 시작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 화재, 농산물 시장가격 하락 등에 의한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기존의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장범위인 자연재해·화재·병충해 등에 따른 피해에 더해,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한다.

농가의 품목별 수입(보험가입연도)이 ‘기준수입’의 일정 수준 미만으로 감소하는 경우 그 감소분을 보험금으로



농산물 시장가격이 하락했을 때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장해주기 위해 도입된 ‘농업수입안정보험’이 개시한다. /뉴시스

지급한다. 기준수입은 농가별 과거 5년 평균 수확량에 과거 5년 평균 시장가격을 곱해서 산출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9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난해까지 10년간 시범사업으

로 운영되었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본 사업 전환을 결정했다. 농가 소득 안정망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상품 유형을 다양화한 것이다.

올해는 총 15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

영할 예정이다. 고구마와 옥수수 등 9개 품목은 올해부터 전국 어디서나 가입할 수 있고 벼 및 봄감자 등 6개 품목 8개 상품은 일부 주산지에서만 시범 운영된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의 농작물 재해보험과 보장범위가 중복되기 때문에 농업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윤원승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앞으로 국민 식생활에 중요도가 높은 30개 품목으로 농업수입안정보험을 확대해, 더 많은 농업인이 재해와 가격변동에 따른 수입 불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월부터 판매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에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송실대가 이윤재 총장과 전체 단과대학 교수진 간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 /뉴시스

이윤재 송실대 총장 “소통서 혁신 시작”

전체 교수진과 간담회

송실대학교는 지난 달 18일부터 4월 3일까지 3주간 이윤재 총장과 전체 단과대학 교수진 간 소통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이윤재 총장의 취임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소통 행사로, 송실대의 교육 혁신과 학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2월 취임식에서 ‘초혁신(Hyper-innovation)’을 통한 송실 ‘Rebooting’을 강조한 이윤재 총장은, 학내 구성원과의 소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이번 간담회는 IT대학, 공과대학, 경제통상대학, 경영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인문대학 등 8개 전체 단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각 학문 분야의 특성과 현안을 고려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 교수진은 교육과정 개선, 연구 지원 확대, 학생 복지 강화 등 다양한 현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윤재 총장은 “대학의 혁신은 교수진과의 신뢰에서 시작된다”며 “각 분야 전문가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송실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실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수진의 연구 역량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연구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 /이현진 기자 ihj@

‘과수화상병’ 신속·정확한 공적방제 강화 산업부, 지역난방 요금 최대 5% 낮춘다

농진청, 진단법 표준화·전문교육 실시

농촌진흥청이 ‘과수화상병 진단을 맡는 정밀 검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함에 따라 정밀진단 지침서를 발간·배포한다. 또 검사 인력 전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진단법 표준화 작업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 곳에서만 과수화상병 정밀진단이 허용돼 왔다.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채취한 화상병 의심 시료를 국립농업과학원으로 직접 운반해 온 것이다. 이 과정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검사가 늦어져 방제 대응에 속도를 내기 어려웠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밀 검

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고 검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식물방역법을 개정(작년 7월 시행)해, 올해부터 정밀 검사기관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정밀 검사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인력, 검사능력을 갖춰야 하며,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지정한다. 농진청은 식물방역법에 근거해 이달 2일 최종 7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내 농업기술원을 과수화상병 정밀 검사기관으로 지정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은 신규 지정된 전국 7개 지역의 정밀 검사기관이 일관된 기준으로 신속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진단법을 정리한 진단 지침서를 발간·배포할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실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개정 고시안을 마련해, 오는 7~21일 기간에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난방 사업자의 열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개정안에선 지역난방 사업 초기에 적자가 발생해 ‘미회수 총괄원가’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한난)와 동일한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열 요금은 지역난방 사업자의 총괄 원가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사업자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 요금(100%)을 택하거나 총괄

원가가 한난 요금보다 더 높은 경우 한난 요금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대형화로 전기 매출이 늘어난 측면을 고려했다. 이에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낮은 총괄원가 수준을 반영한 요금 상한 구간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기존에는 요금 상한 구간이 한난 요금의 100%, 110% 구간에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한난 요금의 98% 상한 구간을 신설한다. 올해 98%를 시작으로 2026년 97%, 2027년 95%로 단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권력 과 송 배,

채정완 초대전

An Invitational Exhibition by Chaejungwan

2025.4.3 Thu_4.13 Sun Gallery 

주최 Gallery  후원  동성제약 신안개발 · 갤러리아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T. 02.6743.3370 · 관람시간 11:00-19:00 *월요일 휴관

전남도, 추경예산안 13兆 제출... “민생 위해 조기편성”

본예산보다 5373억 늘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
청년층 정착·인재양성 지원



전남도청과 22개 시군 깃발.

전남도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 당초 5~6월 추진하던 1차 추경을 앞당겨 13조809억원 규모의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전남도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12조5436억원보다 5373억원(4.3%) 증가했다. 일반회계는 4310억원(4.3%) 증가한 10조3932억원, 특별회계는 306억원(2.7%) 증가한 1조1692억원, 기금은 757억원(5.2%) 증가한 1조5185억원을 반영했다.

우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와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333프로젝트(2034년까지 벤처·스타트업 기업 3000개, 연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 300개, 상장기업 30개 확대)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안정

을 돕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보증수수료 지원사업(당초 3억원) 2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착한 가격업소 공공요금 지원사업에 3000만원,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사업 1억원도 신규 반영했다.

청년창업자 150명에게 월 100만원의 창업기술 개발과 사업비를 지원하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10억원을 신규 반영하고, 전남 미래혁신산업펀드 22억원(당초 28억원)을 증액

했다. 관세 폭탄을 맞은 철강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5억원, 여수석유화학 고용안정 지원에 1억원, 대미 수출 피해기업 지원사업에 1억원을 새롭게 반영했다.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29억원(당초 68억원),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8억원(당초 37억원)을 증액해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했다.

저소득 노인 무료급식 1억원(당초

22억원), 지방도 정비사업 180억원(당초 1100억원), 전남형 만원주택 90억원(당초 150억원), 전남 청년비전센터 건립사업 75억원(당초 75억원)도 추가 반영했다.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을 억제하고 산업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75억원(당초 610억원), 글로벌대학 집중육성 지원사업 15억원(당초 150억원)도 포함했다. 조부모 손자녀 돌봄지원사업비 2억원도 더해졌다.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확대에 4억원, 전남형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비 2억원도 반영됐다.

김영록 지사는 “민생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시기를 앞당긴 만큼, 골목상권 회복과 건설경기 부양, 석유화학·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에 전력을 다하고 정부에 획기적인 규모의 슈퍼추경 편성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완도군

광주 잇는 시외버스 노선 운행

완도군은 완도해양치유센터-광주 송정역을 경유하는 신규 시외버스 노선을 운행한다.

이번 신규 시외버스 노선 운행은 금호고속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이뤄졌다.

버스 노선은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 광주 송정역, 완도해양치유센터를 경유하여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 도착하며, 1일 1회 왕복 운행한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는 오전 9시 10분(송정역 경유 09:30)에 출발, 완도공용버스터미널에서는 오후 5시 10분(해양치유센터 경유 17:30)에 출발한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울진군

‘한방에 OK 수리반’ 확대 운영

울진군은 전구교체, 수도꼭지, 방충망 교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에 대하여 자체 해결이 어려운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해결해주는 ‘한방에 OK 수리반’ 서비스를 4월부터 확대 운영한다.

현재 전문인력 4명이 북부, 남부 총 2개조로 나뉘어 울진 전역에 운영되고 있으며 갈 같이 서비스를 추가했다.

‘한방에 OK 수리반’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 또는 노인부부 세대,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 또는 경로시설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정책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울진(경북)=손기섭 기자 gbnews8082@

군위군

전입 군민 조기정착 ‘총력’

군위군이 인구늘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전입자의 안전한 정착을 응원하기 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지원금과 20만 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한다. 또한 각 세대에 소화기, 태극기, 최대 400리터 분량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전입신고 시 제공하고, 삼국유사의 고장인 군위군의 대표 관광지 삼국유사테마파크 입장권도 1인당 5매씩 지급한다.

/군위(대구)=김준한 기자 kih9@

울산과학기술원, 실내 공기 떠도는 ‘독감 바이러스’ 신속포착 기술개발

기계공학과 장재성 교수팀
수분으로 바이러스 입자 잡고
종이면역 센서로 확인하는 방식

실내 공기에 떠도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빠르게 찾아내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학교, 병원 등에서 독감,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성 감염병을 초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계공학과 장재성 교수팀은 실내 공기 중 바이러스를 손상 없이 잡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 역학 조사에 쓰이는 공기 중 바이러스 포집 방식과는 다르게, A형 독감 바이러스가 이 시스템으로 확인됐다.

이 시스템은 먼져 공기를 기기 안으

로 빨아들인 뒤, 그 안에서 바이러스 입자에 수분을 묻혀서 잡고 이를 종이면역 센서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공기 중 바이러스는 작고 가벼워서 그대로는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바이러스 표면에 물방울을 입혀 크고 무겁게 만들어 잡는 것이다.

내부에 빠른 공기 흐름을 만들면 바이러스 물방울은 관성 때문에 공기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포집기 표면에 부딪히는 원리다.

포집기에 모인 바이러스 샘플을 종이면역 센서에 옮기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를 30분 안에 알 수 있다. 면역 센서는 단백질의 항원항체 반응을 이용하는 검출 기술이다. 바이러스 표면의 헤마글루티닌(HA)과 핵단백질(NP)이 항체와 반응해 검출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해남군, 결혼이주여성 안정적 정착 지원

행복상담소 통번역 제공

해남군은 결혼이주여성이 자국 출신 여성들에게 통번역을 제공하는 행복상담소를 운영하면서 이주여성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행복상담소는 자국민 안부 확인은 물론 각종 상담 등을 통해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상담 결과 초기 정착에 어려움이 있는 결혼이주여성에게는 군에서 사례관리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나라별 비율에 맞추어 베트남 4명, 필리핀 1명, 중국 1명, 일본 1명을 선발해 사전교육 및 개인 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올해 2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해남군에는 2024년 12월 말 기준으로 767명의 결혼이주여성이 거주 중으로 베트남이 359명으로 가장 많으며, 중국과 필리핀, 일본, 태국, 캄보



해남군은 결혼이주여성에 통번역 상담을 제공하는 행복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해남군

디아 등 다양한 나라에서 결혼을 통해 해남에 정착하고 있다.

한편 행복상담소는 해남군가족어울림센터에서 운영한다. 해남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통합되어 지난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해남군가족어울림센터에서는 다문화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담센터와 함께 한국어 교육, 자녀 언어발달 지원, 가족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문화 가족의 소통을 돕고 있다.

/해남(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시 “119신고, 42초마다 1건 접수”

지난해 총 75만3642건 접수

지난해 부산에서 42초마다 1건씩 119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119 신고접수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 한 해 동안 총 75만3642건이 접수돼 연평균 42초마다 한 건씩 접수된 셈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전체 건수는 2023년보다 1.7% 감소했다.

전체 신고 중 화재·구조·구급 등 실제 출동이 필요한 재난 신고는 27만390건(35.9%), 단순 안내나 오신고 등 비재난신고는 48만3252건(64.1%)으로 2023년 대비 각각 4.

1%, 0.3% 줄었다.

신고 유형별로는 화재 사고가 1만6647건, 구급 신고는 18만9872건, 구조 신고 3만8643건 등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조 신고 중 34%는 별집제거가 차지했는데 이는 계절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지면서 벌 서식 및 활동기간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신고 내용 특성은 두드러졌다. 공장이 밀집한 강서·사하·사상구는 대형 화재와 숙박 설비 오작동 신고가, 산림면적이 넓은 기장군은 벌집 제거와 동물 구조 신고가 많았다.

1인 가구가 많은 부산진구는 시건 개방과 엘리베이터 구조, 자살 신고가 많았다.

/부산=이도식 기자

광주시,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본격화

기업, 대학, 기관 등과 ‘맞손’

광주시가 교통혁명의 중심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미래항공모빌리티(Advanced Air Mobility·AAM) 산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포럼을 열고 미래항공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과 대학, 시험·인증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광주시와 베셀에어로스페이스, 토포모빌리티, 디에어, 지에프텍, 광주과학기술원 미래우주항공 연구센터,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광주테크노파크,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등 9개 기업·기

관이 참가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업·기관은 미래항공모빌리티 분야의 기술개발과 시험·평가 및 실증, 양성체계 구축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또 미래항공모빌리티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특화단지 조성, 전문 인재 양성 등에 힘을 모은다. 광주시는 지난해 완공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실증진흥센터를 거점으로 관련 기업과 기관을 집중화해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래항공모빌리티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기반시설 확장과 부품기업 역량강화, 업종 다각화(전환) 등도 진행한다.

/광주=양수영 기자

경북도

‘바로마켓 경북도점’ 정기 개장

경북도는 대구·경북 대표 농산물 직거래 장터인 ‘바로마켓 경북도점’을 매주 토·일요일(오전 9시~오후 5시) 경북도농업자원관리원에서 정기 개장한다.

바로마켓 경북도점은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6년째 운영하는 대구·경북 대표 정례 직거래장터로 도내 100여 농가들이 생산하고 가공한 농특산물을 ‘바로파서, 바로와서, 바로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연중바로마켓 앱(APP)과 문자를 통해 주차별 할인판매 품목 및 장터 운영 소식을 전하고 시중가 대비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경북=최지용 기자 asdadx@

개별 방한객 비중 증가... 면세점 울고, 아울렛·편의점 웃고

관광 트렌드 변화... 유통가 희비
면세점, 영업 축소 등 불황 직면
일반 소매업, 매출 증가 추세



GS25에서 외국인 고객이 환전 키오스크로 외화 환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GS25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트렌드 변화로 국내 유통업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과거 단체 관광객 덕에 호황을 누렸던 면세점은 현재 불황에 직면한 반면, 개별 관광객 증가로 아울렛과 편의점 등 일반 소매업의 외국인 매출이 늘고 있다.

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외국인 개별 관광객(FIT) 증가로 유통업계의 개별 여행 고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편의점과 아울렛 등은 외국인 고객 맞춤 전략을 강화하며 수요 확보에 적극 나섰다.

과거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단체로 방한해 관광사나 여행사를 통해 일정을 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 과정에서 면세점이 단체 관광객의 주요 쇼핑지로 자리 잡으며 호황을 누렸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형태가 단체에서 개별로 변화하면서, 국내 유통가 판도가 바뀌었다. 가장 큰

호황을 누리만큼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도 면세점이었다. 대표적으로 현대면세점은 동대문 지점 폐점을 필두로 시내면세점 사업 축소를 단행한다. 신세계면세점 역시 지난 1월 부산 센텀시티점을 폐점하면서 면세사업 구조조정에 나섰다. 롯데면세점 역시 명동점, 롯데월드타워점, 부산 서면점, 제주 시티호텔점 등 시내면세점 영업 면적을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관계자는 "과거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면세점 매출 구조에 중심축이

었다"며 "그러나 관광 추세와 관광객들의 소비행태가 변화하면서 면세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에서 개별 관광으로 방한객 흐름이 바뀌자, 유통가에서는 편의점 및 아울렛 등이 개별 외국인 여행객 수요를 공략하는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편의점의 경우, GS25에 따르면 지난해 자사가 제공하는 외국인 환전 서비스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1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텍스리펀드 이용률도 전년 대비 93% 늘었으며, 알리페이 및 위챗페이 등 외국인 결제 수단 이용 건수 역시 전년 대비 126.7% 증가했다.

이에 편의점은 간편결제 및 통역 서비스를 중심으로 매출 확대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편의점 GS25는 올해 개별 외국인 방문객을 위해 신규 환전 키오스크를 도입한다. '더즌 환전 키오스크'를 새롭게 도입하고 달러, 엔화, 유로, 위안 등 15개국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는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동시에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는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AI) 통역 서비스를 도입한다. 기존 점포에서 사용하고 있던 휴대용 단말기(PDA)에 영어, 일본어, 중국어뿐만 아니라 체코어, 힌디어, 스와힐리어까지 총 38가지의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외국인 고객 응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렛 역시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개별 여행객 수요 잡기에 나선다.

신세계사이언이 운영하는 여주 프리

미엄 아울렛은 국내 인바운드 전문 여행사 하나투어와 손잡고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원데이 쇼핑 투어' 상품 운영을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해외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서울 홍대와 명동을 거쳐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 도착하는 직통버스 운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외국인 고객 전용으로 브랜드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세이빙스 패스포트' 등의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동대문점 역시 지난 2월 건물 2층 전체를 '서울 에디션' 콘셉트로 새롭게 리뉴얼했다. 서울 에디션은 서울의 현대적인 감각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한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를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단체가 아닌 개별의 형태로 여행객들이 한국 문화를 즐기려는 체험형 소비를 하고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단체 관광객을 중심으로 고가 소비를 유도하는 면세점보다는, 한국만의 식문화 및 패션 등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편의점이나 아울렛 등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홈플러스 "직원 퇴직금, 차질없이 전액 지급" "서울모빌리티쇼에서 '벨리곰' 만나보세요"

퇴직연금 사외적립금 1100억 미납
내년 2월까지 367억 우선 납부 방침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전경 /뉴스시스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로 인한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2025년 적립 예정이었던 퇴직연금 사외 적립금 1100억원을 미납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미납 적립금의 3분의 1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회생계획에 반영해 차질 없이 적립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그동안 퇴직연금 적립금을 15개 금융기관에 분산해 운용해 왔다. 지난해까지 적립금을 100% 납입했으나, 올해 3월 초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이후 단기 유동성 부족으로 납입

에 차질이 생겼다. 미납 금액은 총 1100억원이다. 2025년 납부 예정이던 적립금 540억원과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 변경 판결로 발생한 추가 적립금 560억원

이 포함됐다. 현재 적립률은 83%로 알려졌다.

이에 홈플러스는 오는 2026년 2월까지 미납 적립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367억원을 우선 납부할 방침이다. 잔여 미납금과 통상임금 판결로 발생한 2025년 추가 납부액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차질 없이 처리할 예정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은 최우선 번째 대상인 만큼 문제없이 전액 지급될 것"이라며 "회사 사정으로 퇴직연금 문제로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롯데홈쇼핑 모빌리티 분야 점점 확대



롯데홈쇼핑의 캐릭터 '벨리곰'이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참여해 롯데관의 자율주행차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 /롯데홈쇼핑

롯데홈쇼핑이 자사 그룹 캐릭터 '벨리곰'을 통해 이달 13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모빌리티 전시회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 참여한다고 6일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그룹의 혁신 기술을 소개하는 롯데관에서 '벨리곰'의 디자인을 활용한 조형물, 그래픽, 굿즈 등을 선보인다. 벨리곰은 커다란 곰인형 캐릭터로, 롯데월드를 비롯한 롯데 계열 브랜드의 공식 마스코트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가장 먼저 롯데관 출입구에 3미터 크기의 '벨리곰' 조형물을 전시해 포토존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자율주행차 등 전시물에 벨리곰 디자인 그래픽을 부착했으며, 롯데그룹의 메타버스 플랫폼 '칼리버스'로 구현된 자율주행 체험 콘텐츠에도 벨리곰 이미지를 활용했다.

이번 기획은 벨리곰의 활동 범위를

/안재선 기자

미래 모빌리티 분야로 확장하며 팬들과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것이라는 게 롯데홈쇼핑 측 설명이다.

전시, 팝업스토어 등 오프라인 행사에서 친근한 이미지로 인기를 얻은 벨리곰을 활용해 롯데그룹의 모빌리티 기술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코카-콜라
토레타 신규 광고 공개

코카-콜라의 이온보충음료 '토레타!'가 봄 시즌을 맞아 에스파 멤버 '윈터'와 함께한 새로운 광고 영상을 7일 공개한다.

이번 광고는 '가벼운 이온실천'을 테마로 따사로운 봄 햇살 아래 윈터의 일상 속 수분 충전 루틴을 담아내며 '토레타!'만의 싱그러움을 강조한다.

일상속 떠나는 순간을 조명한 이번 광고는 가볍게 흘린 땀이 오늘의 나를 채워'라는 메시지를 광고 두 편에 담았다.

새로운 광고는 7일부터 코카-콜라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추후 메이킹 영상으로 촬영 당시 현장 분위기와 윈터의 비하인드컷, 인터뷰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쿠광, 중소 제조 파트너사 630곳 협력

"다양한 가성비 제품 선보일 것"

쿠광은 자회사 '씨피엘비(CPLB)'와 협력하는 전국 중소 제조 파트너사 수가 지난해 말 기준 630곳으로 늘었다고 6일 밝혔다. 씨피엘비는 쿠광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자회사다.

쿠광에 따르면, 씨피엘비와 협력하는 중소 제조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약 160곳이던 파트너사 수는 2021년 380여 곳으로 늘었으며, 2023년 말에는 550곳을 넘어섰다.

쿠광은 중소 제조사들이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약 20% 증가하면서 고용 창출 효과도 커졌다고 분석했다. 쿠광 자체 브랜드 상품의 판매

증가가 중소 제조사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며, 이를 통해 고용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올해 2월 기준, 쿠광 씨피엘비와 협력하는 중소 제조사들의 고용 인원은 2만 7000명으로, 지난해 초 대비 4000명 증가했다. 업체 수 증가율 대비 최대 인력 증가폭이다.

씨피엘비 관계자는 "중소 제조사들이 성장할수록 고용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까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제품을 제조하는 다양한 파트너사들을 발굴해 다양한 가성비 제품을 고객들에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롯데백, '디스턴스' 팝업스토어 운영

잠실점 월드몰 지하 1층... 21일까지

롯데백화점은 이달 21일까지 잠실점 월드몰 지하 1층에서 '디스턴스'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디스턴스는 씨엘르, 백퍼센트, 순도 등 글로벌 러닝 브랜드를 한데 모은 러닝 편집숍으로, 의류, 모자, 시계, 운동화 등 다양한 러닝용품 선보인다.

특히, 이번 팝업스토어에서는 캐나다 브랜드 씨엘르가 2025년 봄-여름 시

즌 전 상품을 최초로 공개한다. 미국 브랜드 백퍼센트는 '레제르', '하이퍼크래프트' 등 선글라스 라인을 선보이며, 핀란드 브랜드 순도는 시계 구매 고객에게 시계줄(스트랩)을 증정한다.

롯데백화점은 팝업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다양한 마련했다. 브랜드별로 전 품목 최대 2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일정 금액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추천 상품을 증정한다.

/안재선 기자

HLB “간암신약 美 FDA 승인 불발, 멸균·살균 문제 아냐”

항서제약으로부터 PAL 공유받아 개별회사 영업비밀로 내용 비공개 지적사항 경미한 수준... 빠른 해결 내달까지 세번째 신청서 제출 계획



HLB R&D센터 전경. /HLB그룹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전문회사 HLB가 올해 간암 신약 후보 캄펠리주맙의 멸균 문제에 대한 사실 확인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리보세라닙과 캄펠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품목허가 불발 이후 재도전을 예고한 가운데 향후 행보에 적신호가 켜질지 우려를 낳고 있다.

HLB는 지난 4일 파트너사인 중국 항서제약으로부터 ‘리보세라닙과 캄펠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포스트 액션 레터(PAL)을 공유받았다고 6일 밝혔다.

HLB는 간암 2차 치료제로 ‘리보세라닙과 캄펠리주맙 병용요법’을 연구개발해 지난 2023년부터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인 미국 진출을 계속 도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0일에는 미국 식품의약

국(FDA)에 ‘리보세라닙과 캄펠리주맙 병용요법’ 품목허가 재심사를 신청했고, 6개월 만인 올해 3월 20일 미국 FDA로부터 2차 서류보완요구서한(CRL)을 수령하면서 HLB의 재도전은 불발됐다.

2차 CRL에서 미국 FDA는 HLB의 리보세라닙과 병용으로 쓰이는 항서제약의 캄펠리주맙에 대한 의약품 화학합

성·공장생산·품질관리(CMC) 지적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번 포스트 액션 레터(PAL)는 이러한 2차 CRL의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이와 관련 HLB 측은 “PAL 내용은 개별회사의 영업 비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캄펠리주맙 제조 공정 중 멸균·살균 문제는 아니다. 항서제약의 캄펠리주맙 생산 공정은 수년간 문제없이 잘 운영된 공장으로서 미국 FDA의 우려에 대해 여러 번의 테스트 공정을 통해 살균과 멸균의 문제가 없음을 데이터로 입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FDA는 올해 1월 진행한 항서제약 CMC 실사, 3월 2차 CRL, 4월 PAL 등에 이르기까지 캄펠리주맙 CMC 문제를 잇따라 제기해 왔고, 이에 대해 HLB 측은 ‘해당 문제는 경미한 사항’이라는 입장을 지속해 왔다.

HLB에 따르면, 올해 1월 CMC 실사에서 항서제약은 미국 FDA로부터 ‘무균 공정 검증 절차’, ‘적절한 육안 검사 절차’, ‘전자장비와 프로그램’ 등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세 가지 지적을 받았다. 이후 HLB 측은 이 세 가지 지적 중 ‘무균’ 관련 사항이 2차 CRL 수령 사유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포스트 액션 레터(PAL) 수령 결과, 기존 멸균·살균 문제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HLB는 기존 입장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게 됐다. 특히 HLB 측은 앞서 알려진 지적 사항들은 CMC 문제에 국한된 것으로 경미한 수준인 만큼, 빠르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HLB 측은 “이번 면담을 통해 HLB와 항서제약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재차 확인했다”며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양사는 더욱 긴밀히 협력해 빠른 시일 내 간암 신약 허가를 받는 데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진양곤 회장은 지난 3일 중국 항서제약을 방문해 쑨 파오양 회장과 면담했다. 현재 항서제약은 PAL 수령 후 두 달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따라 HLB는 오는 5월까지 세 번째 ‘리보세라닙과 캄펠리주맙 병용요법’ 품목허가 신청서를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캄펠리주맙이 승인 요건을 갖추 때까지 리보세라닙 승인도 자동적으로 보류된다. /이청하 기자 mlce236@metroseoul.co.kr

삼성바이오에피스, ‘오보덴스’ 품목허가 승인

(골다공증 치료제)

국내 의료현장서 환자 선택권 확대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 10종 확장 한미약품과 마케팅·영업 공동 진행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오보덴스(성분명: 데노수맙)’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6일 밝혔다.

오보덴스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이번 허가를 통해 국내 의료 현장에서도 환자들의 골질환 치료제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오보덴스는 앞서 올해 2월 미국과 유럽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했고, 미국명과 유럽명은 각각 오스포미브, 오보덴스 등이다.

또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 포트폴리오를 오보덴스까지 포함해 총 10종으로 확장했다. 기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4종, 종양 치료제 2종, 안과 질환 2종, 희귀성 혈액 및 신장질환 치료제 1종 등에서 골질환 치료제까지 국내 품목허가를 확보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약품인·허가 및

규제과학(RA)팀장 정병인 상무는 “오보덴스 승인은 전 세계 환자들의 의약품 미충족 수요를 해소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바이오시밀러를 통해 합리적 의료 비용, 환자 혜택 제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3월 한미약품과 ‘오보덴스 국내 공동 판매 업무협약’을 체결해 양사는 오보덴스 국내 마케팅과 영업 활동을 공동 진행한다. /이청하 기자

동아제약 “아이도 쉽게 짜는 펌프치약”

오클라 코리아 ‘조르단 뉴스텝 펌프 치약’

동아제약은 파트너사인 오클라 코리아가 ‘조르단 뉴스텝 펌프 치약’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조르단 뉴스텝 펌프 치약은 펌프 형태로 한번의 펌핑으로 1회 적정 사용량이 나와 아이 혼자서도 쉽게 사용 가능하다. 제품 머리를 왼쪽으로 돌리면 열리고,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긴다.

이와 함께 이번 신제품은 아이들 구강 건강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E와 불소 성분을 함유한다.

특히 연령별 권장 불소 함량에 따라 스텝1, 스텝2로 구분돼 아이의 연령과 치아 상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스텝1은 저불소 함유(500ppm)로 5세 이하 아이들에게, 스텝2는 고불소 함유(1000ppm)로 충치 예방이 중요한 6세 이상 아이들과 충치가 자주 생기는 아이들에게 적합하다.

또 스텝1과 스텝2는 각각 아이들이



‘조르단 뉴스텝 펌프 치약’ /동아제약

좋아하는 딸기향, 포도향이 더해졌다. 치약을 다 쓰고 나면 리필제로 교환해 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어 친환경적인 것도 특징이다.

동아제약은 신뢰할 수 있는 제품력과 편리함을 동시에 갖춘 조르단 뉴스텝 펌프치약으로 아이들 구강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스타벅스, 오늘부터 ‘디카페인 1+1’ 행사

일주일간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진행

스타벅스가 디카페인 커피를 즐기는 고객들을 위해 특별한 혜택을 마련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 오후 2시부터 8시 사이 총 5종의 디카페인 음료를 구매 시 한 잔 더 제공하는 ‘디카페인 커피 1+1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 커피는 디카페인 카페 아메리카노, 디카페인 카페 라떼, 디카페인 플랫 화이트, 디카페인 카라멜 마

키아또, 디카페인 스타벅스 돌체 라떼이며, 1/2 디카페인 적용 시에도 1+1 혜택이 적용된다.

이번 이벤트는 오후에도 카페인 부담 없이 깊은 풍미의 커피를 즐기고 싶어 하는 고객들을 위한 맞춤형 행사로 기획되어 디카페인 음료를 가장 많이 찾는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한다. 해당 시간대 매장에 방문해 이벤트 대상 음료를 직접 주문하면 동일 사이즈의 음료를 한 잔 더 제공한다.

스타벅스의 디카페인 음료는 화학제



스타벅스가 디카페인 1+1 행사를 전개한다. /스타벅스 코리아

품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CO2와 스팀만으로 생두에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내추럴 디카페인(초임계 CO2)’ 공정을 거친 원두를 사용하고 있어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이 유지된다. /신원식 기자 tree6834@

에스쁘아, 그리기 쉬운 아이라이너 선포

‘아이 오프닝 펜슬’ 8종 출시

아모레퍼시픽의 메이크업 브랜드 에스쁘아가 ‘아이 오프닝 펜슬’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6일 밝혔다.

‘아이 오프닝 펜슬’은 눈앞머리, 삼각

존, 아이라인, 언더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 가능하다. 눈가 메이크업을 인위적으로 선을 그린 메이크업이 아닌 피부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메이크업으로 완성해 준다.

녹는점이 낮은 왁스 성분과 스쿠알란

오일을 배합한 제형을 갖춰 피부에 닿는 순간 부드럽게 적용돼 피부 자극이 적다. 제품에 스펀지, 깍아서 사용할 수 있는 샤프너 등을 일체형으로 탑재해 편의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아이 오프닝 펜슬’은 총 8가지 색상으로 구성됐고, ‘로지 우드’ 제외 7가지는 네이버 쇼팽에서, ‘로지 우드’는 7일부터 지그재그에서 출시된다. /이청하 기자

“더벤티 아메리카노 스틱, 이마트서 만나요”

스페셜티 블렌드 원두 활용

커피 프랜차이즈 ‘더벤티’가 스페셜티 블렌드 원두를 활용한 ‘더벤티 아메리카노 스틱’을 출시하고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더벤티는 고객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더벤티 커피를 경험할 수 있도록 스틱커피 제품을 기획했으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 및 매장 방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더벤티 아메리카노 스틱은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페셜티 블렌드 원두로 제작됐다. 이 원두는 엄

격한 품질과 맛의 기준을 통과한 최상급 원두에만 부여하는 BSCA인증마크를 획득, 산뜻한 미디엄 바디감과 은은한 시트러스의 맛과 향에 달콤한 베리의 여운이 감도는 맛이 특징이다.

스티크 한 개당 6g의 넉넉한 용량으로 제작되어 더벤티 특유의 풍성한 맛을 그대로 재현했으며, 여행이나 캠핑 등 매장 방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편하게 더벤티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 더벤티 아메리카노 스틱 제품은 구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우선 판매되며 향후 더벤티 매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원식 기자

NATURAL PRODUCT



모아뜰

엄마의 사랑으로 구워낸 모아뜰 누룽지



- ✓ 100% 국내산 원료
- ✓ 200kcal 이하의 저칼로리
- ✓ 황동판에 구워낸 전통의 맛
- ✓ 50g 한팩으로 간편하게
- ✓ 술 마신 다음날 속풀이로



누룽지탕 & 송능



누룽지 라면



누룽지 김치죽



누룽지 백숙



간편한 식사



레저 활동시



온가족 간식



NAVER



삼성전자, 산불피해 주민에 10억 상당 가전 지원

지난달 성금 30억 기부... 추가 지원 세탁기, 냉장고, TV 등 전달 예정

삼성전자는 최근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 입은 주민들을 위해 10억원 상당의 필수 가전제품을 추가로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산불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TV 등 필수 가전제품을 대한적십자사와 경북도를 통해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집이 전소 또는 반소된 이재민들이 장기간 거주할 이동식 조립주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결정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달 28일 경북 의성 이재민 대피소(의성 실내 체육관)에 이동식 서비스센터 설치하고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도 지난 3월 28일부터 재난 복구 특별서비스팀을 현장

에 파견해 이동식 서비스센터 운영과 가전 및 휴대전화 무상 점검 및 방문

수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팀은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지역에서 피해 고객을 직접 방문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휴대전화 점검 및 수리 장비가 탑재된 전용 차량도 운영 중이다.

한편, 삼성은 이번 산불 외에도 대규모 재해 발생 시 지속적으로 성금과 구호 물품을 기부하며 적극적인 복구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3월 26일에도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30억원의 성금과 재해구호키트 1000개, 천막 600개를 기부한 바 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하나금융그룹, 소상공인 상생 봉사활동

하나금융그룹이 명동상인협의회와 함께 지역 사회 소상공인을 위한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그룹 임직원과 가족들 100 100여명은 행복상자 만들기와 환경정비 활동을 진행했다. /하나금융그룹



기아,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입학식

기아는 5일 서울 압구정 브랜드 체험관 Kia 360에서 하모니움 교육 프로그램 1기 참여 청소년 25명의 입학식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1기 청소년들은 IT, F&B, 영상편집, 조경 등 4가지 특화 영역에서 교육받는다. /기아



KCC, 국토부 '새뜰마을사업' 참여

KCC가 국토부 '새뜰마을사업'에 동참한다. 6일 KCC에 따르면 최근 2025년 새뜰마을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CC 백승근 수석(왼쪽 첫번째), 국토교통부 이상주 실장(오른쪽에서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CC



애경산업, 지역사회 '꽃밭 가꾸기' 행사

애경산업이 지난 3일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아동보육시설 '꿈나무마을 파란꿈터'에서 꽃밭 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애경산업 직원들과 보모봉사단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백합, 백일홍 등 식물 약 1000주를 식재하며 화단을 꾸리고, 파란꿈터 내 생활공간을 쾌적하게 조성했다. /애경산업



풀무원푸드앤컬처, 이주여성 쿠킹클래스

풀무원푸드앤컬처가 송파가족센터와 협업해 다문화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쿠킹클래스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쿠킹클래스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돕고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리법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풀무원푸드앤컬처

“난임환자 돕는 AI 만들어요” LG, ‘에이머스 해커톤’ 성황

임신 성공확률 예측 AI모델 개발 LG AI 연구원 등 채용 박람회 진행

LG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LG 에이머스 해커톤’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해커톤에는 총 2738명의 지원자 중 온라인 예선을 통과한 98명의 청년이 참가했다.

대회 주제는 ‘난임 환자의 임신 성공 확률을 예측하는 AI 개발’로, LG화학 과 마리아병원이 문제를 공동 출제하고 실제 환자 시술 데이터 수십만건을 제공했다. 양측은 난임 치료에 대한 참가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결선 참가자들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하며 실전 경험을 쌓았다.

LG는 최종 수상팀을 선정해 5월 초 서울 마곡에서 시상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고용노동부장관상)과 최우수상(LG AI연구부장상)을 포함한 상위 3개 팀에게는 상금 총 1천만 원과 L



LG가 지난 5일부터 이틀간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LG 에이머스 해커톤’을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위 사진은 LG 에이머스 해커톤 참가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 /LG

G 입사 지원 시 서류 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참가자 전원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총 1억 원 규모의 참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튿날에는 LG AI 연구원, LG전자, LG이노텍, LG화학 등 7개 계열사가 참여한 채용 박람회와 함께 1:1 취업 상담, AI 역량 검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혜민 기자

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체험해보세요”

오상욱 선수와 고객 초청행사 성료 르노 성수에서 ‘싱크 누아르’ 운영

르노코리아가 지난 4일 그랑 콜레오스 한정판 블랙 에디션 ‘에스프리 알핀 누아르’ 출시를 맞아 서울 성동구 소재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에서 공식 앰버서더 오상욱 선수와 함께하는 고객 초청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그랑 콜레오스 공식 앰버서더인 펜싱 사브르 금메달리스트 오상욱 선수와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 사전 모집을 통해 초청받은 르노코리아 고객 200여 명이 참석해 그랑 콜레오스 에스프리 알핀

누아르 레이저 아트쇼, 디제이 파티, 흑백 포토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겼다.

르노코리아는 오는 13일까지 플래그십 스토어 르노 성수에서 고객 체험 프로그램 ‘싱크 누아르’를 운영한다.

행사 기간 르노 성수를 방문한 고객들은 레이저 아티스트 윤제호 감독이 기획한 ‘그랑 콜레오스 에스프리 알핀 누아르 레이저 아트쇼’, 흑백 사진 전문 사진가 오병기 작가와 협업한 ‘흑백 포토존’, 파리디자이너들이 신문이나 소소한 물품을 구매하던 기관대를 프렌치 블랙 감성으로 재해석한 ‘르노 키오스크’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양성운 기자 ysw@

LG생건,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추진

11일까지 지원자 모집

LG생활건강은 오는 11일까지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서울·경기 거주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여성 장애인 20명으로, 이번 사업은 사회활동, 육아 등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한다.

대상은 ▲이동용(휠체어, 운전 보조기, 경사로) ▲학습 및 업무용(확대기,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화면 낭독 소프트웨어) ▲가사 및 육아용(높이 조

절 유아침대, 베이비 모니터, 배변 알리미) ▲호신용(경보기, 삼단봉, 화재 감지기) ▲건강관리용(휠체어 피트니스기, 기립 보조기) 등을 1인 최대 400만원 안팎으로 수량과 품목 제한 없이 활용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여성장애인 날개달기 사업 지원자로 선정되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소속 보조공학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받는다. 이후 사용법 교육과 사후 관리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정하 기자 mlee236@

삼육대, ‘경기청년 사다리’ 수탁기관 선정

2억6000만원 사업비 확보

삼육대학교(총장 제해종)는 ‘2025년 포천시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와 포천시가 지원하는 이 사업은 경제적 여건으로 해외연수 경험을 갖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균등한 연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민선8기 경기도의 대표 청년정책이다. /이현진 기자 lhj@

삼육대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2억 6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를 통해 포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49세 이하 청년 20명을 선발해, 캐나다 탄데일대(Tyndale University)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삼육대 정성진 대학일자리본부장은 “포천 지역 청년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성장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스포츠토토야 △정재우 편집국장

부음

▲박상민씨 별세, 박형수(국민의힘 원내수

석부대표)·형도씨 부친상 = 6일, 울진군의료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 8일. 054-785-7800.

▲김화분 씨 별세, 차기환(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상임고문)·차대환·차선옥 씨 모친상=6일 경남 진주시 남강로 1721 진주장례식장 1호실, 발인 8일. 055-759-4141

오늘의 날씨

4월 7일 (월)
음력: 3월 10일

수도권 날씨
6 ~ 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6:09 | 해질 / 19:00

연천 1/20, 동두천 3/20, 가평 0/20, 파주 2/19, 서울 6/20, 양평 3/21, 인천 7/16, 수원 8/19, 용인 6/19, 평택 3/21, 백령도 6/12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해지 사유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법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의 약혼자인 병으로, 보험수익자를 갑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병이 보험계약 체결 직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당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병이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갑이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을 회사는 갑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 체결 직전 병은 급성 신우신염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당일 위 병원 의사로부터 "백혈구, 혈소판 등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되어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

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었다(이하 '계약 체결 전 치료사실'이라 함). 그런데도 갑은 이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것이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마찬가지로(상법 제655조). 다만,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점, 즉 보험사고의 발생이 보험계약자가 불고지했거나 부실고지한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상법 제655조 단서)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보험금지급을 다툰 이 소송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보험계약자 측에 있고, 만일 그 인과관계가 조금이라도 인정할 여지가 있으면, 상법 제655조 단서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는 법

리를 설치하면서, "진료의뢰서에 기재된 내용인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지속적 증가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주된 지표이고, 병이 진료의뢰서 발급 시점으로부터 4개월가량 지난후에야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긴 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약체결 이후 위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여 내원한 상급병원에서 요로 감염증 및 급성 신우신염으로 계속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다가 위 진단을 받기에 이른 것이어서, 4개월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백혈구 및 혈소판 수치의 증가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전혀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즉, 계약 체결 전 치료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을 회사는 갑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 27294 판결).

이처럼 보험계약 체결시 당시에는 그리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보이는 점이라 하더라도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오늘의 운세 4월 7일 (음 3월 10일) http://www.saju4000.com

- 취** 36년생 결과부터 챙기지 말고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기다려라. 48년생 변화 속에서 기회가 온다. 60년생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는 피곤. 72년생 궁에서 얽혀 있는 응과 봉황의 새끼를 보라. 84년생 망설이는 사이에 기회는 날아간다.
- 소** 37년생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신세지만 내릴 수도 없다. 49년생 타인의 시선에 부러움을 느낀다. 61년생 들뜨지 말라. 73년생 난초와 같은 어여쁜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되니 행복함. 85년생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불평만 다.
- 호랑이** 38년생 무미하게 지내지 말고 외출을. 50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도록. 62년생 운이 열렸으니 미웠던 일 찾아서 해내도록. 74년생 벌집에 벌이 모여 들 듯 재물이 번창한다. 86년생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참아라.
- 토끼** 39년생 힘들어도 걸어오던 길 계속 가야 할 것. 51년생 남의 의견에 휘둘리지 말고 주관을. 63년생 결혼은 이해하면서 살아가는 여정. 75년생 매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니 나는 어이할까. 87년생 분수를 지키면 실수가 적어진다.
- 용** 40년생 말을 소곤소곤하는 사람을 주의하라. 52년생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나니 이 또한 좋구나. 64년생 일이 넘치는데 손이 부족하다. 76년생 사람의 부귀는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 88년생 무위도식하니 기술이라도 배워두는 게.
- 뱀** 41년생 행복의 여신은 한군데 오래 머무르지 않는데. 53년생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이 최선 몸과 마음도. 65년생 운전할 때 언제나 양보를. 77년생 이익을 위하여 몸을 해치지는 말라. 89년생 조상님의 산소를 살피고 제사 모시기.
- 말** 42년생 돈이 없으니 고독한 생활의 연속이다. 54년생 강을 건너어도 배를 소중히. 66년생 생각지 않은 초대로 즐거운 하루. 78년생 인생은 허무한 꿈만 같지 않다. 90년생 감정을 자제해에만 남의 단점을 건드리면 해가 되어 돌아온다.
- 양** 43년생 어느 구름에 먹구름이 끼었으니 주의. 55년생 나이 드는 것이 서러워진다. 67년생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말라. 79년생 부분적 결함이 전체를 망칠 수 있으니 협력을. 91년생 인내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신에게 도움이니.
- 원숭이** 44년생 그 아버지에 그 아들. 56년생 영연하느라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많이 즐겁다. 68년생 계획한 지출이 생기니 마이너스다. 80년생 뜻을 세상에 펼치지는 못했지만, 본분을 지키며 살았다. 92년생 투자와 투기를 잘 구분하여야 한다.
- 닭** 45년생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57년생 예의가 있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바르게 된다. 67년생 다툼이 있으나 해결되어 감사한 하루임. 79년생 돈도 재물도 많았으나 일도 많다. 91년생 집수리는 좀 더 준비하고 시작해야 한다.
- 개** 46년생 느긋하게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다. 58년생 일의 진행에서 중요한 것은 신용이다. 70년생 뒤돌아서서 부러워한다. 82년생 재물과 삶의 누릴 권리로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다. 94년생 하늘도 파랑과 공기도 맑으니 기분도 상큼.
- 돼지** 47년생 외로움보다 힘든 건 잊지 못하는 그리움. 59년생 내 것이 아니면 욕심내지 않도록. 71년생 장기투자는 심사숙고해서. 83년생 얽지른 물은 주위 담기 힘들다는 교육의 말씀이다. 95년생 싫다면서 떠나는 사람은 미련 두는 게 아님네.

냉정하게 돌아온 2030세대, 대선게임 '스타트'



기지수첩
최빛나 (산업부)

탄핵 정국이 마지막까지 이어진데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세대의 영향이 컸다. 그간 정치나 경제에 무관심하다는 인식이 강했던 2030세대가 이제는 강한 목소리를 내는 추세이다.

여론조사 전문가인 여론조사공정이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실시한 조사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0대 이하에서 33.1%, 30대에서 43.5%로 집계됐다. 한때는 50%를 넘어섰다는 결과까지 나왔다. 중장년층 대비 낮은 수치가 아니다.

이는 2030세대의 정치·사회적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다. 실제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는 태극기를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청년들을 쉽게 볼 수 있다. 4050세대보다 온라인에 익숙한 2030세대들은 SNS, 트위터 등을 적극 활용해서도 정치·경제 관련 지적과 비판의 메시지를 연일 쏟아내고 있다. 실제 꽤나 설득력 있는 객관적인 메시지들이 넘쳐났다.

이처럼 2030세대들이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된 것은 세대 갈등에서 비롯된 사회구조 개혁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자리, 교육, 주거, 물가 상승 등의 불투명한 미래가 코앞에 닥친 청년들을 "우리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절박한 상황 인식으로 내몰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현실적인 정치·사회 개혁에 목소리를 결집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시작됐

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들이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대선에서 누가 선택 받느냐가 이번 탄핵의 승자가 된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이 30%에 달하지만 무응답층이 38%라는 점에서 판세가 엇갈릴 수 있다. 무응답층 중 2030대가 60%라는 점과 그 중 70%는 이 대표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기 대선이 60일도 남지 않았지만 판세는 유동적이라는 점이 흥미롭다. 무응답층을 확보하는 게 이번 대선 공략의 핵심으로 보여진다. 한국 사회가 당면한 과제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간 '무반응'했던 2030세대들이 냉정하게 돌아왔다. 진짜 게임은 지금부터다. /vitna@metroseoul.co.kr



김상회의四季 약은 고양이

"약은 고양이 밤은 어둡다."라는 속담이 있다. 밤은 밝기로는 고양이를 누가 당할까. 밤은 좋기로 유명한 고양이를 두고 오히려 밤이 어둡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마치 제주 좋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 요리조리 머리 굴리다가 자기 꼬에 자기가 속아 결국은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인간들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의 대가들이다. 눈앞의 작은 이익에 민감하다. 원래 소탐대실의 대표적인 예는 고사에도 전하듯 전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나라 혜왕은 촉나라를 정복하고자 했으나 촉나라로 가는 지형이 가파르고 험해 침공을 할 수 없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촉왕이 물욕이 많은 것에 착안하여 물질 공세를 제안한 것이다.

춘추전국시대 때뿐만 아니라 근대에 이르기까지 옥은 금에 비견되는 보석에 속했다. 먼저 집채만 한 옥괴를 캐어 운반한 다음 황소를 조각했고 그 안을 파서 돈과 비단을 잔뜩 넣고는 촉왕한테 우호의 예물로 선사할 것이라고 선전했다. 옥우소문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널리 퍼져나가 촉나라 왕에게 전해졌고, 신하들은 의심했으나 촉왕은 드디어 진나라 혜왕이 야심을 버리고 자신에게 굴복하려 한다면서 기뻐했다.

촉나라 왕은 험한 길 때문에 선물이 늦어질까 저어하여 백성들을 동원하여 산길 운행이 수월하도록 길까지 닦아주었다. 이 때문에 혜왕은 군사를 일으켜 촉을 칠 수 있었다. 그 결과 촉나라 제후는 사로잡히고 촉나라는 패망하였다. 예물도 날아갔지만 나라까지 잃고 포로 신세가 되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중생 살아가 절체절명의 사레까지는 아니더라도 작은 피로 큰 손해를 겪는 일이 적지 않다. 손해를 좀 보더라도 지는 듯 살아가는 것도 인생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의 알고리즘을 공개합니다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64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150111 2017년3월09일 제1750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 아닌 ‘분리’가 정답”

특별 인터뷰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방과 전·후 돌봄 늘리는 대신 부모 근로 시간 줄여야 해요. 부모와 떨어져 기관에 12시간 머무는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까요?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의 필요성을 부인할 순 없지만,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엔 역부족입니다.”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회장실에서 진행된 본지와 인터뷰에서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는 맞벌이 부모의 양육 환경 보장을 골자로 더 과격적인 대책이 공약으로 담겨야 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 직접 지은 슬로건을 벽에 건 채 인터뷰에 응한 강주호 회장이 대뜸 ‘저출산’ 문제에 열을 올리자 이유가 궁금해졌다.

강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직면한 문제들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대책으로 국가 책임 돌봄체계 확대 위주의 정책이 펼쳐지면서 일부 학부모님들이 학교를 자칫 ‘국가가 육아를 대신해 주는 곳’으로 오인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라며 “학교는 보육이 아닌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돼야 사교육보단 공교육이 강화하고, 또 출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임기 시작하지도 100일이 훌쩍 넘었다.

“취임 후 무엇보다 교원 보호를 위해 현장 속으로 달려갔다. 교사들은 아이들을 소신과 열정으로 가르치고, 나는 그런 여건을 지키고 마련해야 공교육이 살아난다는 생각에서다. 경남 아동학대 신고 피해 교사, 공무원으로부터 고발당한 충남 교장, 과중한 업무에 목숨을 끊은 인천 특수교사 유족 등을 만나 위로하고 법적·재정적 도움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강원 현장체험학습 사고 인솔교사, 불법 몰래 녹음 피해 경기 특수교사가 재판을 받는 가운데 탄원, 기자회견 등으로 선처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한국교총 창립 이래 최연소이자 최초의 30대 회장으로 당선됐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 계획인가.

“초·중·고 교원의 평균 연령은 41세로, 나는 교직 사회에서 중간 정도다. 교육에 평생을 헌신한 선배 교원들에 대한 예우와 교직에 입직한 지 얼마 안 된 후배 교사들의 소신을 그 누구보다 잘 지켜주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 낮은 처우와 약성 민원에 어려움을 겪는 젊은 교사들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책임만 가중되며 합리적 보상체계가 미흡한 관리직, 고경력 교원들을 존중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교사 출신 회장이 선출된 것이 교육계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교총 80여년 역사에서 교사 출신 회장은 이번이 세 번째다. 대부분 대학 교수가



강주호 한국교총회장이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본지와 인터뷰 갖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1986년 경남 진주출생
목원대학교 수학교육과 졸업
경상국립대 교육대학원 석사
경상국립대 대학원 박사 수료

2014년~진주동중학교 교사근무

교총 청년위원회 분과위원장
교총 정책자문위원
교총 현장대변인
진주시 지역교원보호의원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대표위원
한국교총장학회 이사장
한국교육신문사 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現 제40대 한국교총 회장



한국교총 창립 이래 최연소 회장 당선 교직사회 중간위처서 선후배 가교역할 현장 경험한 ‘교사출신’ 회장 의미 커

‘교권 5법’ 시행에도 교권침해 여전히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 필요 약성민원, 열악한 처우 등 대책마련해야

과도한 행정업무, 과감히 이관·폐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추진 계획도

회장직을 맡아왔다. 교실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매일 겪어왔기 때문에 교사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라 생각하신 것 같다. 학교 현장에서 함께 문제를 겪고 고민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교사 출신 회장의 의미가 크다.”

-소위 ‘교권 5법’이 개정·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교권 침해 문제는 여전히 다.

“교총이 지난 3월 14~18일 유·초·중·고 교원 6111명을 설문조사 한 결과, 교원 80%가 교권 5법 시행 후 교권 보호에 긍정적 변화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실제로 교권 5법 개정 이후에도 초등생에게 뺨 맞은 교감선생님,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1심에서 당연퇴직 형을 받은 인솔교사,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서로 사과하라고 지도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교사 등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 개정에도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법·제도적 개선점은.

“후속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 우선,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경찰이 무혐의 판단한 아동학대 신고 건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약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에 대해 교사들의 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시급하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정서학대 조항도 명료화해야 한다.”

-학교에서 가장 바뀌어야 하는 게 있다면.

“교원이 과도한 행정업무에 매몰됐다는 점이다. 업무량을 넘어 교원으로서 자긍심을 무너뜨린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현장체험학습 가기 전 버스 계약부터 버스 공기업체까지 교사 매뉴얼에 포함돼 있다. 버스 운행 중 타이어가 터지면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버스 운전기사 음주 체크까지 교사 역할이다. 교사들을 교육의 본질에 몰두할 수 없게 만드는 사례 중 하나다.”

-그렇다면 교사의 행정업무 어떤 식으로 경감할 수 있나.

“이제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이 아니라 ‘분리’가 정답이라 말하고 싶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건 행정업무 잘하는 교사가 아니라 학생 수업과 생활지도, 상담 등 교육본질에 충실한 교사다. 행정외청 수준으로 교육청 단위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뒤 이관·폐지할 행정업무를 모두 발굴하고, 실제로 교육청과 지자체, 경찰청 등으로 과감히 이관·폐지해 나가야 한다.”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30조원 정도로 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공교육 부실 문제가 거론된다. 우리나라 교육과 입시제도 전반에 관해 의견이 있다면.

“입시 문제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다. 대우받고 안정적인 직업이 희소한 사회 환경 속에서 상위권 대학입학이 미래 삶의 안정성을 보장한다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교육 정책만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입시제도가 자주 바뀌고 복잡해진 측면이 크다. 입시 정보 취득과 대응에 취약한 저소득층 학생들이 가장 피해를 입고 소외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대입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 중이다. 논의과정에 교총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생각이다.”

-교육 현장은 여전히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충돌하고 갈등한다. 교육 정책의 정치 중립화를 위한 복안이 있나.

“교원들에게 정치기본권이 없기 때문에 그간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고 좌지우지돼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실제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교원의 정당가입과 정치자금 기부가 가능하고, 이중 프랑스와 독일, 스웨덴, 캐나다와 스위스 등은 교사의 의원 출마 등 정치적 활동에 규제가 없다. 독일은 국회의원 중 10%가량이 현장 교원 출신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교사의 정치 참여는 헌법·법률상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금지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 ▲ “손 떼라”...미 전역서 반트럼프 시위...50개 주 1200 개소에서 /사진 뉴스스
- ▲ “미국인 54%가 트럼프 관세정책 반대...75%는 물가상승 우려”

- ▲ NYT “한국, 지난 4개월 간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줬다”
- ▲ 프랑스 재무 “美빅테크 기업 데이터 사용 규제 할 수 있어”

- ▲ 日, 후쿠시마 오염수 생물 사육 실험 2년 반 만에 종료
- ▲ 대만 타이베이 중심가에서 20대 한국인 유학생 피습 당해



개별 관광객 증가
면세점 울고
편의점 웃고
L1



Life

HLB
“간암신약
FDA 승인 불발”
L2



“발달장애인 진로 코칭... 단순한 생계 아닌 꿈 설계합니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꿈앤컴퍼니
박대수 대표

해가 뜨기 전 어둠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그 새벽, 누군가의 더 나은 내일을 고민하며 움직이는 이가 있다. 바로 꿈앤컴퍼니의 박대수 대표(46). 발달장애인의 진로와 직업을 위한 교육과 코칭 사업을 꾸준히 이어오며 “모든 이의 직업은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철학을 실천하고 있다.

박대표는 고등학생 시절부터 장애 아동을 위한 주간 보호시설에 자원봉사를 다녔다. 그 인연은 사회복지사라는 진로로 이어졌다. 그는 부산 경성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공부했다. 이후 서울 성동장애인복지관에서 약 12년간 근무하며 성인 발달장애인의 직업 교육을 담당했다. 그러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현실을 마주하게 됐다.

대부분의 성인 발달장애인은 어릴 때부터 적성과 흥미를 탐색하거나 체계적인 직업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었다.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볼 기회조차 없었던 것이다.

결국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직장에 적응하지 못해 금세 퇴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학령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진로를 명확히 설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계속 생깁니다. 이들을 위한 ‘진짜 진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죠.”

◆지속가능한 직무 개발, 자립 응원

지난 2019년, 박 대표는 ‘발달장애인의 진로 설계를 돕겠다’는 목표로 교육컨설팅 기업 꿈앤컴퍼니를 설립했다.

그는 단순한 생계를 위한 직업이 아닌, 장애인이 스스로의 적성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직업을 갖도록 돕고자 했다. 기업과 장애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모델을 고민한 결과였다.

같은 해, 꿈앤컴퍼니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됐다. 현재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꿈앤컴퍼니는 발달장애인의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발달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설계 교육’과 발달장애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1:1 코칭이 있다.

박대표는 지난 6년간 약 1000회 이상의 강의를 진행했으며, 현재까지 전국 각지에서 교육 및 코칭을 2300여 회 이상 진행했



박대수 꿈앤컴퍼니 대표.



박대수 대표가 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진로직업 설계의 이유와 방법을 강의하고 있다.



박대수 대표(오른쪽 끝)와 발달장애인 진로 코디네이터 5명의 모습.

/꿈앤컴퍼니



사회복지학 전공, 복지관서 12년 근무
장애인 직업교육 담당하며 문제 느껴
발달장애인 진로 위한 교육사업 시작

발달장애인 직무 가능성 확장에 앞장
개인 흥미·강점 반영한 직무찾기 기획
올바른 진로 안내로 사회적 자립 도와

‘발달장애인 진로 코디네이터’ 양성
비슷한 경험 공유하며 공감·신뢰

다. 2022년부터는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진로·직업 설계 교육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또한 자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구축해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가능성을 직업으로, 경험을 코칭으로

꿈앤컴퍼니는 단순히 기존 직업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개인의 흥미와 강점을 반영한 ‘새로운 직무’를 직접 기획하고 개발한다.

대표적인 사례는 관광 가이드 직무다. 박대표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시절부터 알고 지낸 역사에 흥미가 많고 암기를 잘하

던 한 여성 발달장애인을 떠올렸다.

그가 관광 가이드로 일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그는, 사회적기업 ‘가이드랩’과 협력해 발달장애인 관광가이드 양성 과정을 만들었다. 기획 단계부터 지역사회 전문가, 교육 전문가, 그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까지 직접 참여한 이 과정은 실제 가이드 활동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꿈앤컴퍼니는 바리스타, 제과제빵사, 인권 강사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발달장애인의 직무 가능성을 넓히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

교육과 코칭을 진행하던 중, 박대표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떠올렸다. “발달장애인이 직접 발달장애인을 코칭할 수 있다면 어떨까?” 비슷한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 사이에서라면, 더 깊은 공감과 신뢰가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러한 아이디어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발달장애인 진로 코디네이터’ 직무다. 다양한 직업 경험을 쌓은 발달장애인이 그 직무에 관심을 둔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진로를 안내하고 조언하는 방식이다. 2022년에는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통해 5명의 발달장애인을 프리랜서 강사로 양성해 현재 이들은 진로 코칭을 직접 제공하고 있다.

◆‘내일의 자립’ 위한 ‘오늘의 실천’

“하루 24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낄 때도

많지만, 그만큼 누군가의 삶에 보탬이 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기쁘게 감당할 수 있어요.”

박대표의 하루는 누구보다 빠르게 시작된다. 매일 30여 회의 강의와 코칭을 진행하며, 강의 하나를 준비하는 데만 평균 5~6시간이 소요된다. 그는 최근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과정, 심리상담사·진로상담사 자격 등을 준비하며 전문성을 더욱 다지고 있다.

2025년부터는 박대표가 경기도 수원시의 ‘매천자립지원센터’ 센터장을 맡아, 대학과 연계한 발달장애인 특화 전공을 기획 중이다. 문화예술형 장애인일자리 창출과 고용연계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품을 활용한 악기 만들기, 미술 창작활동 등을 통해 환경 보호와 예술 활동을 융합한 ‘환경지킴이 아티스트’라는 새로운 직무도 개발 중이다. 그는 발달장애인이 ESG 시대에 걸맞은 직무를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다. “진로와 직업은 결국 자립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자립은 준비와 실천이 꾸준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저희 꿈앤컴퍼니가 발달장애인과 경계선지능인 가족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김연경 마지막 경기 보러가자’, 정관장-흥국생명 4차전 매진 /사진 뉴스시스
▲‘데뷔전서 122구’ 키움 신인 정현우, 11일만에 등판서 5이닝 2실점

▲허벅지 부상 떨친 화이트, 2군 등판서 2이닝 1실점...최고 구속 154km
▲‘명불허전’ 2시간 이어진 완벽 양상블... ‘벨체아 프라트’

▲미술관 투어부터 실크로드 탐방까지...교보문고 인문 여행
▲국립중앙박물관, 4월 매주 수요일 큐레이터와의 대화 운영

멈추지 않는 혁신으로

FUTURE RUSH

KT&G는 단순한 Runner가 아닌 한계에 도전하는 Rusher로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MSCI ESG평가
4년 연속 'AA'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글로벌 생산체제 구축

지배구조 최우수기업
(한국ESG기준원)

글로벌 150여 개국 수출

Global Top-tier

